




2026 포르투갈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10
	가. 정부 현황	10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10
	3. 주요 이슈 Pick	12
	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본격 추진	12
	나. '26년 군 현대화 계획 개정에 따른 방산 투자 확대 예상	14
	다. 고령화 심화와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 시장 다변화	15
<hr/>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8
	가. 시장 특징	18
	나. 무역	22
	다. 산업	31
	라. 투자	34
	2. 유망 산업	40
	가. 의료기기 산업	40
	나. 뷰티 산업	44
	다. K-팝 관련 소비재 산업	47
<hr/>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54
	2. 진출전략	56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67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69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71
	첨부 4.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72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10
3. 주요 이슈 Pick	12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경제 현상 유지) '26년, 2% 내외의 성장세 전망

- '26년 포르투갈의 GDP 성장률은 약 2%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25년 1.9%(IMF 전망치)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 '26년 전망치 : IMF(2.1%), OECD(1.9%), EU 집행위원회(2.2%)

포르투갈의 실질 GDP 전망

(단위: %)

연도·기관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2025년	1.9	1.9	1.8
2026년	2.1	1.9	2.2

주: IMF는 '25년 10월, OECD는 '25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25년 5월 발표 자료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인플레이션율은 전반적으로 완화 및 안정화 추세
 - EU 집행위원회는 '25년 5월 기준, 원유 및 기타 원자재 가격 하락을 감안할 때 향후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다양한 기관들 또한 '26년에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봄
 - * 다만,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과 견조한 내수 수요의 영향으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포르투갈 인플레이션율 전망

(단위: %)

연도·기관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2025년	1.9	2.1	2.1
2026년	2.0	2.1	2.0

주: IMF는 '25년 10월, OECD는 '25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25년 5월 발표 자료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및 안정적으로 전망
 -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25년 8월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하고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조정
 - 약 8년 전 '정크(junk)' 등급으로 추락했던 포르투갈이 재정 건전성과 경제 회복력 강화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투자 등급을 회복

□ (호재 요인) 관광업 호조 및 EU 투자 확대

- 팬데믹 이후 관광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4년 GDP의 11.9% 차지
 - 포르투갈 통계청(INE)에 따르면, '24년 관광 수입은 277억 유로(약 45조 원)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포르투갈 관광청은 '25년에 관광업이 약 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EU 기금 활용 촉진 및 확대 전망
 - EU 순이전은 GDP 대비 '25년 2.4%에서 '26년 3.2%로 상승해 역대 최고치 전망
 - * '14~'20년 평균 GDP 대비 EU 순이전 비율은 1.1%
 - 포르투갈은 EU 기금을 기반으로 2030 포르투갈 국가투자 계획(PNI 2030, '21~'27년까지 230억 유로, 약 38조 원), 경제회복계획(RRP, '21~'26년까지 222억 유로, 약 36조 원)을 추진 중
 - EU 집행위원회는 '27년 만료되는 다년도 재정계획(MFF) 관련 기금 중, 집행되지 못한 기금을 신속히 활용할 것을 제안(한국무역협회(KITA))

□ (부진 요인) 무역 긴장으로 경제 둔화 우려되나, EU 기금·노동 시장 등 방어 요인 존재

- 대외 수출 불확실성 확대 우려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로 '25년 EU 경제는 약 1.4% 수준의 저성장이 예상되며(EIU), 포르투갈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독일, 프랑스 등 경기 둔화 및 자동차 산업 수출(포르투갈 GDP의 5.6%) 부진이 우려됨
 - * 미국은 '24년 기준 포르투갈의 4위 수출 대상국(57억 달러)이나, 스페인(223억 달러), 독일(105억 달러), 프랑스(104억 달러) 등 역대 수출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UN Comtrade)
 - 무역 긴장과 불확실성이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나, '26년에는 △ 금융 여건 완화, △ EU 기금 유입 확대, △ 견조한 노동 시장 등이 주요 성장 방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포르투갈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I	백만 명	10.29	10.30	10.36	10.43	10.58	10.67	10.71	10.69
명목 GDP ^I	십억 달러	240.01	228.85	255.71	255.4	287.42	308.59	321.44	336.27
1인당 명목 GDP ^I	달러	23,330	22,220	24,840	24,800	27,880	28,917	29,980	31,470
실질 성장률 ^I	%	2.7	△8.3	5.7	6.8	2.3	1.9	1.9	2.1
실업률 ^I	%	6.7	7.2	6.7	6.1	6.6	6.5	6.4	6.3
소비자물가 상승률 ^I	%	0.3	△0.1	0.9	8.1	5.3	2.2	2	2.1
재정수지(GDP 대비) ^I	%	0.1	△5.8	△ 2.9	△0.3	1	0.7	0.5	0.1
총 수출 ^E	백만 달러	67,064	61,497	75,229	82,463	83,620	85,725	86,390	88,895
(對韓 수출) ^G	백만 달러	113	205	195	202	192	197	N.A	N.A
총 수입 ^E	백만 달러	89,539	77,896	98,200	115,159	113,682	116,247	117,133	119,640
(對韓 수입) ^G	백만 달러	578	448	630	959	941	932	N.A	N.A
무역수지 ^E	백만 달러	-18,262	-14,364	-18,879	-27,770	-27,336	-27,333	-27,531	-27,492
경상수지 ^E	백만 달러	1,836	-1,446	-1,721	-5,354	1,626	6,708	6,252	5,899
환율(연평균) ^E	현자국/US\$	0.89	0.88	0.85	0.95	0.92	0.92	0.90	0.88
해외직접투자 ^F	억 달러	-16.8	23.8	-0.1	-54.3	-56.4	-67.1	-72.0	-78.7
외국인직접투자 ^F	억 달러	108.1	41.7	92.4	130.6	114.4	131.8	161.7	149.0

주: 2025년은 추정치, 2026년은 전망치 기입,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음수가 해외로의 직접투자를 의미
 한국의 교역 통계는 제3국 경유 물품에 대한 집계 방식 차이로 한국무역협회 교역 통계와 큰 차이 있음
 자료: I(International Monetary Fund), E(EIU Viewpoint), G(Global Trade Atlas)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 성장률) 최근 3년간 유로존 평균을 상회하는 GDP 성장을 지속
 - 단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관광업 회복과 EU 경제회복기금에 기반
 - * 팬데믹 이후 EU의 회복자금은 총 약 723억 유로(약 117조 원) 규모로 포르투갈의 구조 개혁과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

포르투갈과 유로존 실질 GDP 성장률 현황 및 전망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포르투갈	7.0	2.6	1.9	1.7	1.5
유로존	3.6	0.6	0.9	1.2	1.2

주: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자료: EIU Viewpoint

- (소비) 내수 수요와 관광객 증가가 소비 확대 요인으로 작용
 - 포르투갈은 인구 약 1,064만 명('24년 기준)으로 벨기에(1,176만 명), 체코(1,091만 명), 스웨덴(1,059만 명)과 유사한 규모(Eurostat)
 - 최근 이민자 유입 증가로 인구가 완만히 늘어나며 노동력과 내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광객 증가 또한 소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지속적인 가계 최종 소비지출액 증가 또한 내수 시장 확대에 기여

가계 최종 소비지출 동향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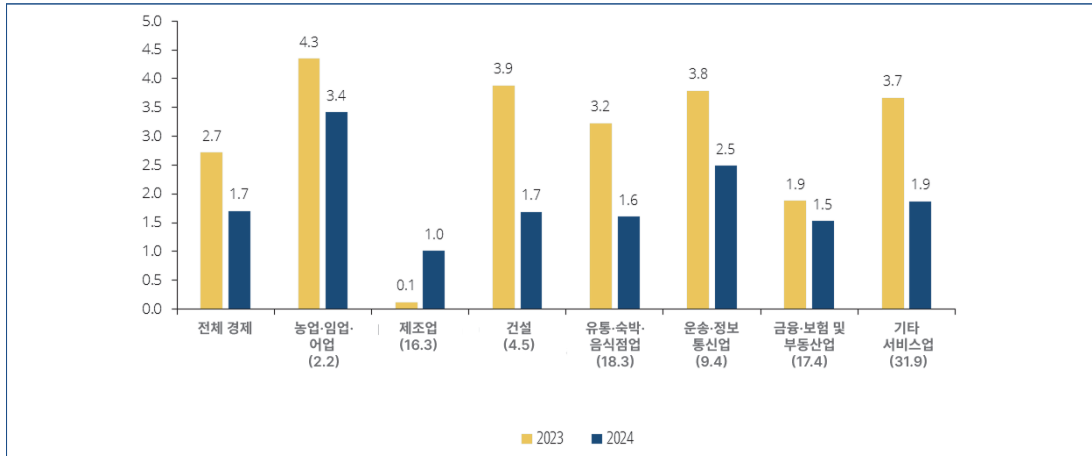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405	1,673	1,802	1,890	2,013

주: '21~'24년은 추정치, '25년은 전망치

자료: EIU Viewpoint, Pordata('25년 8월 기준)

- (민간 투자) '25년 단기 둔화 후 '26~'27년 회복 전망
 - 포르투갈 중앙은행(BP)은 '25년 경기 불확실성과 높은 금리 영향으로 민간 투자가 사실상 정체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26~'27년에는 불확실성 완화와 금리 인하, EU 기금 효과 등에 힘입어 민간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며, GDP 성장의 주요 동력이 민간 소비에서 민간 투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 민간 투자는 '26년 0.2%p, '27년 0.3%p GD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BP)
- (산업생산) 서비스업·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
 - 포르투갈 통계청(INE)에 따르면, '24년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년 대비 실질 부가가치(GVA) 증가율이 하락했으며, 특히 건설 부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제조업은 주요 교역 상대국(독일·프랑스) 경기 둔화와 자동차 산업 수출 부진의 영향을 받았고, 서비스업은 관광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동산 서비스에서 정체가 나타남
 - 포르투갈은 산업생산에서 변동성이 큰 편으로, '24년 10월 4.4%에서 '24년 12월 5.1%로 상승하는 등 월별 등락이 꾸준히 나타남(Eurostat)

〈'24년 포르투갈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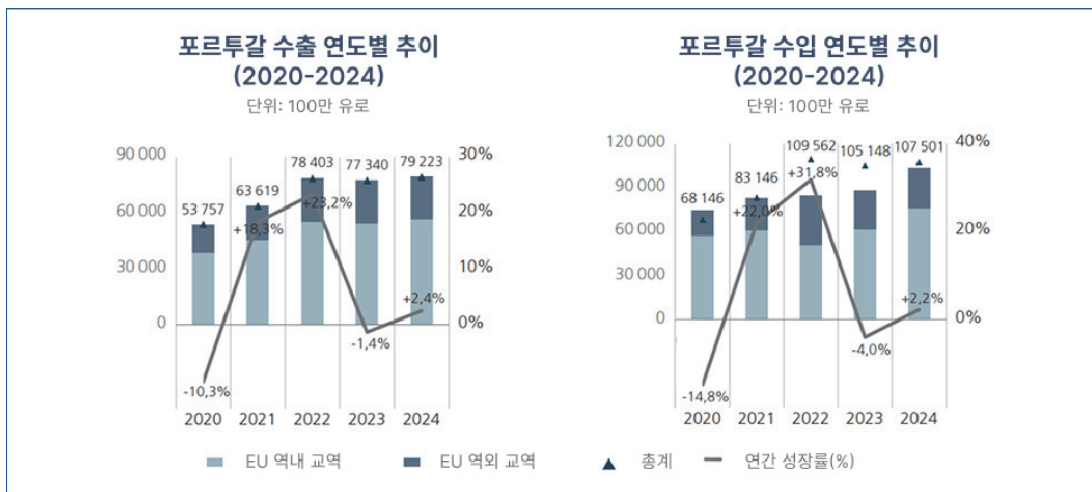


자료: 포르투갈 중앙은행(BP)

• (대외 교역) 최근 5년간 수출입 모두 성장세 기록

- 최근 5년간 수입과 수출, 모두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유지
- 포르투갈 통계청(INE)에 따르면, '24년 포르투갈의 상품 수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792억 유로(약 119조 원)로 EU 역내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으며, 스페인, 독일, 프랑스가 주요 수출 대상국을 유지
- '24년 포르투갈의 상품 수입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075억 유로(약 175조 원)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입국 또한 수출국과 동일한 스페인, 독일, 프랑스임

〈'20~'24년 포르투갈 수출입 연도별 추이〉



자료: 포르투갈 통계청('25년 7월 23일 기준)

- (투자 유입) 변동성 속에서도 포르투갈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 포르투갈의 FDI는 '21~'22년에 약 1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한 뒤, '23년 72억 달러로 감소하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임(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
 - '24년에는 회복세가 나타나며, 포르투갈 중앙은행(BP)에 따르면 FDI 거래액이 132억 유로(약 22조 원)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으며, 주요 투자국은 스페인(38억 유로, 약 6조 원), 룩셈부르크(31억 유로, 약 5조 5,000억 원), 네덜란드(14억 유로, 약 2조 원) 순임
 - '25년 상반기 FDI는 전년 동기 35억 유로(약 5조 7,000억 원)에 비해 감소한 -4억 유로(약 -6,523억 원)를 기록했는데, 포르투갈 내 기업이 같은 그룹에 속한 해외법인(모회사·자회사 등)에 부채 상환한 것에 기인
 - 국가별로는 스페인으로부터의 투자가 크게 줄었으나, 스위스, 미국, 이탈리아, 벨기에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상쇄(BP, '25년 6월)
 - 외국계 기업은 포르투갈 경제에서 고용(19%), 매출(29%), 부가가치(28%) 창출에 기여,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
- (투자 진출) '23년 이후 투자 진출 회복세
 - 포르투갈의 대외 투자 금액은 팬데믹 기간인 '20년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23년 57억 유로(약 9조 원)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24년 해외투자 거래액은 72억 유로(약 11조 7,000억 원) 기록(BP)
 - '25년 상반기 해외투자액은 26억 유로(약 4조 원)로, 전년 동기 24억 유로(약 3조 9,000억 원) 대비 증가 했으며, 유럽 국가 내 법인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으며, 주요 투자 대상국은 스페인(7억 유로, 약 1조 원), 네덜란드(7억 유로, 약 1조 원), 프랑스(5억 유로, 약 8,152억 원)였음(BP)

2. 정치(정책) 환경

- '25년 조기 총선 결과 중도 우파 정당 연합인 민주 동맹의 집권
- 신정부 매년 1%p씩 법인세 인하로 기업 성장 도모
- 점진적인 최저임금 인상 및 청년 지원 정책 실시

가. 정부 현황

□ '25년 6월 출범한 중도 우파 신정부, 과반 이하 의석 확보로 정책 추진 시 난항 예상

- '25년 5월 18일 조기 총선에서 중도 우파 정당 연합인 민주 동맹(AD)이 승리했으며, 과반 최소 의석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91석)으로 정권 차지
 - AD 연합 중 사회민주당(PSD)이 총리(루이스 몬테네그로) 및 대부분의 장관직을 차지
 - 과반수 이하의 의석 점유라는 한계로 '26년 예산 협상 등 주요 정책 추진 시 의회 지지 확보에 난항 예상
 - * 포르투갈 의회는 230석의 단원제, 4년 임기이며 전통적으로 사회당(PS)과 사회민주당(PSD)이 주요 중도 정당으로 통치
- 극우 정당 쉐가(Chega)가 60명의 의원을 배출하며 제 2당으로 자리매김하며 유럽 전반에서 나타나는 극우 정당의 성장 흐름과 유사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음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법인세(IRC) 감면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기업 성장 도모

- 신정부는 법인세를 매년 1%p씩 인하해, '26년 19%에서 '28년 최종적으로 17%까지 감면할 계획
 -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소득 첫 5만 유로(약 5만 4,000달러)에 대해 최대 15% 수준의 감면세율 적용
 - * '25년 기준 포르투갈은 지방세 및 추가세를 포함한 총 명목세율이 약 30.5%에 달해 OECD 38개국 평균(23.7%)과 EU(21.5%)보다 높은 수준

□ 점진적인 최저임금 인상 추진

- 신정부는 '28년까지 최저임금을 현재 월 870유로(약 141만 원)에서 월 1,020유로(약 166만 원)로 인상할 계획
 - 월 평균 임금 2,000유로(약 326만 원) 달성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
 - * '24년 기준 미혼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 : EU 27개국 평균 2만 9,572유로(약 4,827만 원), 포르투갈 1만 6,946유로(약 2,766만 원)(Eurostat)

□ 청년 고용 세제 감면 및 지원 정책 실시

- '25년부터 청년 고용 세제 혜택(IRS Jovem)을 실시해 만 35세 이하 청년이 첫 직장에서 일정 소득(연 2만 8,000 유로(약 4,565만 원) 이하)을 벌 경우 최대 10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면세율은 1년차 100%, 2~4년차 75%, 5~7년차 50%, 8~10년차 25%로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35세가 되는 해까지 적용 가능

□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른 ESG 보고서 작성 의무화

-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화 확대
 - CSRD는 '23년 1월 EU 차원에서 발효되어 포르투갈도 국내법으로 전환했으며, '24년 회계연도부터 대형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적용 확대
 - '24년부터 직원 500명 이상 대기업과 금융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ESG 보고서를 작성해 왔으나, EU 집행위원회가 '25년 2월 발표한 옴니버스 법안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 직원 1,000명 이상(기존 250명), △ 자산 2,500만 유로(약 408억 원) 이상, △ 연 매출 5,000만 유로(약 815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될 전망
 - '24년 10월 기준, 포르투갈 기업 중 공식적인 ESG 전략을 보유한 기업은 58%에 불과하며, 스페인·이탈리아와 같이 80% 이상이 이미 대응 준비 중인 국가들과 비교되는 수준
 - '25~'28년 회계연도에 따라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EU 내 자회사를 둔 글로벌 비EU 기업까지 순차적으로 의무가 확대될 예정

3. 주요 이슈 Pick

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본격 추진

□ 개요

- 인프라 확충으로 유럽 내 물류 허브로 발전 도모
 - '24년 4월, 포르투갈 정부는 교통인프라 확충 계획 발표한 후, 5월 '34년 개항을 목표로 리스본 외곽 알코셰테(Alcochete) 지역에 신공항 건설 결정
 - * 신공항 이름을 루이스 드 카몽이스 공항(Aeroporto Luís de Camões)으로 명명
 - 건설 비용은 최대 90억 유로(약 15조 원)로 추산되며, 재정은 EU 기금, 민관투자(PPP)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 예정
 - * 현재 움베르투 델가두 공항(리스본 공항)은 용량 초과로 포화 상태이기에 단기 방편으로 공항 확장 계획도 병행 추진. '25년 8월 1일에 포르투갈 공항공사(ANA)에서 정부에 계획서 제출
 -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타구스 강에 제3교량(도로·철도 병용교) 건설 계획도 병행하며, 이는 포르투갈 서부·남부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고속철 프로젝트를 통한 이베리아 고속철도 네트워크 통합을 위한 리스본-포르투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첫 구간(포르투-Oiã)에 대해 유럽투자은행(EIB)으로부터 8억 7,500만 유로(약 1조 4,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실행 중이며, 총 사업비는 약 30억 유로(약 4조 8,000억 원) 규모
 - 리스본-마드리드 고속철도 노선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에보라(Évora)-바다호스(Badajoz) 구간을 우선 완공한 후 장기적으로 '30~'34년 사이 전 구간을 완성할 계획이며, 완공 시 두 수도 간 이동시간은 기존 6시간에서 약 3시간으로 단축될 전망
- 포르투갈 정부, 향후 10년간 약 6조 5,000천억 원 규모의 항만 투자 계획 발표
 - '25년 7월, '2025~2035 포르투갈 본토 상업항 전략(Strategy for Commercial Ports on the Mainland 2025~2035, Ports 5+)'을 발표했으며, 포르투갈 항만의 서비스 개선 및 민간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함
 - 6개 주요 항만 대상 연간 화물 처리량을 현재 대비 50% 증가한 약 1억 2,500만 톤, 컨테이너 처리량을 70% 늘려 650만TEU까지 확대하기 위한 투자 계획
 - 레이송이스(Leixões)항에 약 9억 3,100만 유로(약 1조 5,000억 원) 투자, 컨테이너 터미널 신축, 화물 시설 확장, 오일 터미널 개조, 철도 연결 및 친환경 연안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며, 시니스(Sines), 리스본, 세투발 등 주요 항만에도 현대화 및 확장 공사가 추진되며,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항만 인프라 업그레이드 계획도 병행
- (관련 분야·산업)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첨단 기술 및 기자재 수요 확대 전망

-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관련 교통 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교통 시스템, ITS(지능형 교통체계), 통신 케이블,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첨단 기술이 적극 도입될 것으로 예상
- 특히 특수 기자재 및 시스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공항) 자동화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스마트 게이트, 공항 IT시스템 등
 - * (교량) 고성능 강재·케이블, 내진 설계 기술, 스마트 센서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등
 - * (고속철) 전동차 부품, 신호·통신 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장치 등
- 항만 및 물류 분야에서는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첨단 물류 플랫폼 구축, 친환경 연안 전력 시스템 도입 등 물류 효율성 제고와 환경 규제 충족을 위한 새로운 기술 수요가 발생할 전망

포르투갈 스마트 교통 인프라 관련 주요 지원정책

정책명	주요 내용	예산 및 추진 주체	프로젝트 기간	관련 분야
PNI 2030 (국가 인프라 투자계획 2030)	도로·철도·항만 등 국가 인프라 현대화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ITS) 구축 추진	총 430억 유로 규모 중 약 35% 교통 분야, 인프라·주거부	'20~'30년	ITS, 교통제어시스템, 철도·도로 기자재
RRP (국가 회복탄력성계획)	EU 회복기금 기반 스마트 교통, 전기버스, 디지털 모빌리티 프로젝트 추진	약 164억 유로 중 교통·모빌리티 분야 6억 유로 이상, 포르투갈 정부+EU (NextGenerationEU)	'21~'26년	디지털 교통관리, 친환경 대중교통, 충전 인프라
Mobilidade Sustentável 2030 (지속가능 교통 전략 203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수소차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디지털화 촉진	정부 예산+EU 펀드 병행, 환경·기후행동부	'20~'30년	전기·수소차, 충전소, 배터리 기자재
Horizon Europe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자율주행·데이터 통합 등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총 950억 유로 규모, EU 연구혁신총국 (DG RTD)	'21~'27년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데이터, IoT 솔루션
Lisboa E-Nova· Porto Digital 등 도시 이니셔티브	스마트시티 기반 교통 데이터·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지방정부+ EU 지역펀드 공동 추진	지속사업 ('18년 이후 단계별 추진 중)	도시 데이터 플랫폼, 센서, IoT, 주차·신호 시스템

자료: Portugal2030, 포르투갈 정부 홈페이지(www.portugal.gov.pt), Lisboa E-Nova, Porto Digital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입찰 과정에서 EU 역내 기업 우선 원칙과 현지 조달 규정이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현지 기업·유럽 대기업 컨소시엄 참여가 필요하며, 토목시공은 스페인·포르투갈 건설사와 경쟁으로 참여 기회 제한적
- 일부 특수 기자재 공급(공항 자동화 장비, 철도 신호 시스템, 항만용 친환경 장비 등)이나 스마트 건설·디지털 관리 솔루션 같은 틈새 영역에 한해 진출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나. '26년 군 현대화 계획 개정에 따른 방산 투자 확대 예상

□ 개요

- (배경 및 내용) 포르투갈 정부, GDP 2% 수준 방위비 지출 조기 달성 계획
 - '24년 기준 방위비는 GDP의 1.6% 수준(약 7조 3,000억 원)이며,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25년 말까지 13억 유로(약 2조 2,000억 원) 추가 투자 예정
 - 이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24년 7월)에서 합의된 '35년까지 GDP의 5%를 방위에 투입하겠다는 공동 목표(핵심 국방 3.5%, 인프라 1.5%) 이행의 일환
 - * 해당 목표는 △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유지 및 강화, △ 장비 확보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전력 강화, △ 군·민 겸용 투자 사업 재평가 등 3가지 축으로 달성
- '26년 포르투갈 군 현대화 계획(LPM) 제도 개정 예정
 - 현행 LPM 총 규모는 '23~'34년 55억 7,000만 유로(약 9조 7,000억 원)로 사이버·우주, 해·공 전력, 병사전투체계 등 프로젝트가 포함되었으나, '26년 개정에서 총 예산 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2차 4개년('27~'30년) 우선순위가 조정될 전망
- 포르투갈 정부, EU SAFE 재정 지원 요청 예정
 - EU는 '25년 5월, 회원국들이 긴급하게 대규모 국방 장비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제도(SAFE) 도입
 - '25년 11월 30일까지 포르투갈 정부는 공식적으로 SAFE 하의 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
- 관련 분야·산업
 - (사이버 방위) 위성·통신·감시·사이버 보안 능력 강화
 - (우주 분야) 포르투갈 우주 전략 2030(Estratégia Espaço Portugal 2030)에 따라 위성, 우주 인프라, 우주 기반 서비스 등에 투자
 - (해군)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 보호를 위해 초계함과 다목적 지원함, 해상 감시체계 투자
 - (공군) 수송기, 공중급유기, 후송·구호용 헬기 등 확보를 통한 공군의 수송 및 지원 능력 확대
 - (육군) 병사전투체계와 탄약·예비전력 확보가 강화되며 드론 등 신기술 점진적 반영
 - 군 인프라와 방산 생태계 투자가 확대되어 기지 현대화, NATO·EU 공동 프로젝트 참여, 민군 이중용도 기술 개발 등이 뒷받침될 전망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해양 전력, 항공, 사이버·우주 방위 분야 등에서 한국 기업의 협력 및 진출 기회 확대가 기대되며, LPM 개정 및 SAFE 금융지원 제도에 따른 방산 수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 (해양 전력) 광대한 EEZ 보호를 위한 해군 함정·지원함·해상 감시체계 강화는 한국 조선·방산 기업 (함정, 잠수함, 통합전투체계, 해양 감시 레이더)에게 진출 기회
 - * (항공) 수송기, 헬기, 무인기 등 한국 기업의 정비·부품·MAO(유지·보수·운영) 서비스 진출 가능성
 - * (사이버·우주 방위 분야) 위성, 통신, 보안 장비 등 첨단 IT 분야
- 포르투갈은 EU 및 NATO 내에서 공동 조달 및 현지 생산을 중시하므로, 현지 동반 관계없는 단독 진출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입찰 시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 또는 기술이전 요구가 강화될 수 있음
- 정치·재정 변수 감안 또한 필요하며, 국방 예산 확대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나, 경제 성장세 둔화나 재정 압박 발생 시 투자 속도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 고령화 심화와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 시장 다변화

• 빠른 고령화 진행 중이나 외국인 인구 증가로 노동 인구층 다변화

- 포르투갈은 EU 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17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인구의 약 24%가 65세 이상
 - * 포르투갈 통계청(INE)에 따르면, '25년 6월 기준 총 인구 1,074만 명 중 연령별 구성은 0~14세(13%), 15~64세(63%), 65세 이상(24%)
- 이민에 개방적인 국가로 적극적인 이민 유입이 고령화에 대한 완충 역할
 - * 단, '25년 이민정책 변경 추진으로 인해 향후 유입 하락 가능성 존재
 - * 포르투갈 이민청(AIMA)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 외국인(합법적 거주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4%이며, 구 식민지국들(브라질·아프리카), 동유럽, 인도, 파키스탄, 중국 출신이 다수
- 이민자가 현지인이 기피하는 저소득 직업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14년에는 기업의 7.9%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23년에 22.2%로 증가(BP)
 - * '19~'23년 사이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된 정규 고용계약 노동자 수는 13.0% 증가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증가의 70% 이상 기여
- 국적 다양성으로 인해 식품, 생활용품, 문화상품에 이민자 특유의 수요가 반영되고 있으며, 이미 한국 문화(K-푸드, K-뷰티, K-팝 등)에 친숙한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특징
- 이는 유통업체와 브랜드가 시장 세분화 전략(시니어 타깃 제품, 다국적 식품 라인업,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 등)을 강화하도록 유도

- 관련 분야·산업

- 고령화 심화에 따른 실버 시장 성장 잠재력 증가. 간호 서비스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재택 의료 서비스 등 기술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 확산 가능성 존재
- (다문화 확대) 이민자 증가로 식품, 외식, 유통 산업에서 다문화적 요소가 반영, 이국적 식재료·레스토랑·프랜차이즈 진출 기회가 확대. 또한 의류·화장품·콘텐츠·생활재까지 소비 트렌드가 다양화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실버 시장 확대로 건강식품, 실버푸드, 의료·헬스케어 기기, 웰빙용품 등 고령층 대상 제품과 서비스에 기회가 존재하며, 한국은 K-헬스케어, 건강보조식품, 스마트 헬스 기기 분야에서 경쟁력 보유
- 다문화·외국인 소비층 증가로 다양한 식품 및 생활재 수요가 발생하며, 이미 한류에 친숙한 소비자층이 많아 한국 식품·화장품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에 유리하므로 소비 시장 다변화에 따른 틈새 시장 창출
- '25년 이민정책 강화(입국 전 고용계약 의무화, 귀화 요건 강화 등)로 인해 외국인 인구 증가세 둔화 가능성이 있으며, 고령층 및 외국인 다수는 중저소득 계층이므로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 확대에 제약 발생
- 대형 슈퍼마켓, 드럭스토어,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에서 현지·EU 브랜드 선호가 여전히 강하므로, 한국 기업은 현지 파트너십·브랜드 현지화 전략이 필요
- 식품·의약품·화장품은 EU 인증 및 현지 라벨링 규제가 엄격해 초기 진입장벽으로 작용

A stylized world map composed of small white dots on a dark blue background, spanning the entire page. The map is centered and shows the outlines of the continents.

Ⅱ.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8
2. 유망 산업	40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유로존 평균 대비 양호한 경제 성장세 및 인프라 개발 확대 추진
- 낮은 임금 수준으로 가성비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
-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가교 역할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에 따른 강점 존재

가. 시장 특징

□ 주요 특징

- EU 내 양호한 경제 성장세 유지 및 추가 성장 잠재력 보유
 - EU 집행위원회는 포르투갈의 '26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으며, 이는 '25년 추정치인 1.8% 대비 0.4%p 증가한 수치
 - * 최근 시행된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된 시장 불안정성의 영향으로 2% 초반대 전망
 - * '25년 유로존 GDP 성장률은 0.9%로 예측(European Commission, '25년 5월 19일)
- 역내 교역 선호로 역외국 수입보다 역내 교역에 높은 의존(70% 이상)
 - 포르투갈 바이어들은 제3국 제품도 직접 수입하기보다 타 EU국 물류창고를 활용한 유통 선호
 - * 포르투갈 바이어들도 관료주의적인 통관시스템으로 인한 애로 호소
- 인구 및 면적 면에서 유럽의 중간 수준
 - 포르투갈은 세계적으로 작은 나라로 인식되지만, 유럽에서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와 유사한 면적(km²)이며, 인구 면에서 유럽 13위(1,041만 명)로 벨기에, 체코, 스웨덴, 그리스, 헝가리,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규모
 - * 스웨덴(1,066만 명), 체코(1,059만 명), 그리스(993만 명), 헝가리(963만 명) 등
- 철도, 항공 등 인프라 개발 확대 추진
 - 주요 도시인 리스본과 포르투 중심, 해안 도로 인프라 위주로 발달
 - 화물 운송의 핵심인 철도 인프라 미흡으로 스페인과의 연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철도망에 대한 투자 집중

- 항공의 경우, 주요 3개 공항은 리스본(수도), 포르투(북부), 파루(남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24년에 리스본 신공항 건설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설계, 제안서, 인허가 등 조율 중
- * 해상 화물 운송의 경우 리스본(수도), 레이소에스(포르투 근처, 북부), 시네스(알렌테주 서해안) 등 3개 주요 항구가 있으며, 시네스가 포르투갈에서 가장 활발한 해상 항구로 투자 확대 추진 중

□ 구매력, 소비 성향

- (가성비 제품 선호) 포르투갈은 EU 국가 중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고성능·고품질 제품 보다는 가성비 제품 선호
 - 포르투갈의 최저임금은 '25년 월 870유로(약 142만 원)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가처분소득은 증가세
 - * '2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을 두는 22개 EU 회원국 수치를 단순 평균하면 월 약 1,200~1,250유로(약 195~203만 원), 구매력(PPS) 보정 기준으로는 월 약 1,600유로(약 260만 원) 수준으로 추산(Eurofound)
 - * 가처분소득의 경우, '24년에는 1,993억 2,000만 유로로, '23년의 1,803억 2,000만 유로 대비 상당한 증가를 보였음
 - Statista에 따르면, '25년 기준 포르투갈 소비자의 79%는 쇼핑 시 할인 혜택을 중시한다고 응답
 - * Statista의 '25년 포르투갈 소비자의 쇼핑 성향 통계에 따르면, 구매 시 상위 고려 요소는 △ 할인 혜택, △ 편안함과 실용성, △ 세련된 복장 순
- (전자상거래 성장세) 포르투갈 우체국(CTT)에 따르면 자국 내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조사 참여 업체의 79.1%가 매출 증가를 보고
 - Statista의 '2024년 3분기 주간 온라인 쇼핑 활동'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가 온라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했으며, 28.5%는 온라인 가격 비교 서비스 이용
 - *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쉬인(Shein)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아마존(Amazon)이 전자제품, 서적 및 가정용품 분야에서 포르투갈 소비자들의 최우선 선택지로 자리하고 있음
- (최근 트렌드) 소비자들의 내구성이 높은 제품 선호가 증가하고 있고, 저렴하고 편리한 방식의 중고 거래 플랫폼(Vinted 등)을 중심으로 중고품 거래 또한 확대되고 있음
 - 소비자들의 '그린워싱(Greenwashing)'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감축 등 지속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브랜드 선호 경향 증가

□ 주요 인증

- (식품) 포르투갈 식품수의학총국(DGAV) 규정 준수 필요
 - 인증 : 공통 건강 입국 문서(CHED), 도착 통지서(NOА)
 - 절차 : EU 계정 생성 → TRACES-NT 프로파일 설정 → 도착 48시간 전 CHED·NOA 작성 → 검사 기관 승인 → 세관 제출

- 필수서류 : BL 또는 운송장, 인보이스·패킹 리스트, 제품 정보 파일(성분·LOT 포함), 위생 원산지 증명서
 - * DGAV 홈페이지 : <https://www.dgav.pt/comerciointernacional/conteudo/importacao-de-paises-terceiros/>
- (화장품) EU의 화장품 등록 포털(CPNP)에 화장품 등록 외에도 포르투갈 의약품 및 건강제품 규제 당국(INFARMED)의 추가 인증 필요
 - CPNP 등록을 위해서는 EU 내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사전 준비 후 신고 필요
 - 아울러, INFARMED에 적합성 선언서를 사전에 요청해야 통관 가능
 - * 법령 '23년'25에서 라벨링과 언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적합성 선언서(Declaração de Conformidade) 요구사항, 제한 물질 목록, 허용 색소, 방부제 및 자외선 차단제 목록 등 정보 확인 가능
 - * CPNP 포털 : <https://webgate.ec.europa.eu/cnpn/> INFARMED 홈페이지 : <https://www.infarmed.pt/web/infarmed/importacao>
- (의료기기) CE-MDR 인증을 거쳐 CE 마크 획득 필수
 - 제조업체는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에 안전성과 성능 요건, 임상 평가 및 위험 관리 보고서를 포함하여 승인 기관에 제출
 - 인증서 발급 후 매년 정기적인 사후 심사 필요
 - * 기기의 분류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 유형, 취득 절차, 갱신 주기 상이
 - *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CE-MDR : https://health.ec.europa.eu/medical-devices-topics-interest/reprocessing-devices/manufacturers-md_en

□ 포르투갈 시장의 전략적 가치

- 아프리카 내 포르투갈어 사용국 진출 시 교두보 역할
 -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와의 경제, 외교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포르투갈어 사용국들을 중심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 포르투갈어 사용국(CPLP(포어사용국공동체), 8개국) : 앙골라,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상투메 프린시페, 브라질, 동티모르, 포르투갈
 - 특히, 건설, 에너지, 금융 등 포르투갈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업을 통한 진출 기회 탐색 가능
- 우수한 인적 자원과 전략적·지리적 위치 기반의 서유럽 유망 투자처
 - 포르투갈은 낮은 인건비, 높은 영어 구사 능력, 친화적인 국민성 등으로 외국 투자 기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 포르투갈은 '24년 영어 능력지수(EF, English Proficiency Index)에서 세계 6위에 오를 정도로 우수한 영어 구사력 보유

- 유럽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지만, 대서양과 접해 있어 아프리카, 북미, 남미 등지와 교역에 유리한 전략적 입지 갖추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 포르투갈 정부는 재생에너지, R&D(연구개발), 기술 등 우선 산업 분야에 대해 세제 혜택, EU 기금 지원, 간소화된 절차 등을 제공하여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 지원
 - 포르투갈의 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제도의 예는 다음과 같음
- Madeira International Business Centre(MIBC) : EU가 승인한 특별 세제 혜택으로 유럽 최저 수준인 법인세율 5% 적용, 배당 및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등 제공
- 골든 비자('23년 개편) : 기존의 부동산 중심 투자를 폐지하고 R&D, 문화·유산, 혁신 펀드 등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최저 25~50만 유로)로 조건 변경. 이 제도는 '23년과 '24년 연속으로 Global Residence Program Index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25년에도 5위권 유지
- IFICI(NHR 2.0, 해외 인재 유치 세제) : 과학, R&D, 기술, 혁신 등 전략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10년간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포르투갈 내 발생 소득에 대한 20% 단일 세율 적용, 대부분의 해외 소득에 면세 혜택 부여
- 신흥·혁신 산업 중심으로 성장 중
 - 포르투갈은 재생에너지, 기술 스타트업, 디지털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핀테크, 인공지능(AI) 분야 국제 기업 다수 유치
 - 리스본에서 매년 세계적인 글로벌 행사인 '웹 서밋(Web Summit)'이 개최되면서 투자자, 혁신 기업, 정책 결정자들이 모이는 중심지로 부상
 - Unicorn Factory Lisboa가 유럽혁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Lisboa Innovation for All' 프로그램은 교육, 건강, 이민자 통합과 같은 분야의 혁신적 솔루션을 위해 최대 36만 유로(약 5억 9,000만 원)의 상금을 제공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EU 역내 중심의 안정적인 수출 구조 유지 속 점진적 성장세
 - '25년 1~6월 기준 총 수출액은 약 4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 기록
 - 포르투갈은 전체 수출의 약 70%를 EU 역내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이나 브라질 등 역외국 수출도 점차 확대
- * 포르투갈 정부는 미국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U-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대외 여건 악화(미국 관세 등)에 대응해 수출·국제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 111억 유로 규모 패키지 발표(운전자금·투자금융, 수출투자 라인, 보조금, 신용보험 등)(<https://www.portugal.gov.pt>, 로이터통신)
- (수입 규모) 만성적인 수입 의존 구조 유지
 - 포르투갈은 전통적으로 수입 규모가 수출을 초과하는 순수입국으로, '24년 기준 총 수입액은 약 1,035억 달러
 - 에너지, 산업용 중간재 등 핵심 품목 수입 비중이 높아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무역수지 변동성도 큰 편

포르투갈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G		2024년 ^G		2025년 6월 누계 ^I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83.6	1.4	85.7	2.5	41.1	3.1
수입	113.7	-1.3	116.3	2.4	56.0	6.9
무역수지	-30.1	8.0	-30.6	-1.7	-14.9	-19.2
총 교역	197.3	-0.1	202.0	2.4	97.1	5.2

주: '25년 6월 누계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한 수치

자료: G는 Global Trade Atlas('25년 8월 12일 기준), I는 포르투갈 통계청('25년 8월 12일 기준)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EU 역내 국가 위주의 수출 중심
 - '25년 1~6월 기준, 수출 상위 3개국은 스페인(117억 달러), 독일(64억 달러), 프랑스(54억 달러)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출액의 약 50%를 차지
 - 주요 역외 수출 대상국은 미국(28억 달러, 4위), 앙골라(6억 달러, 11위), 브라질(5억 달러, 13위) 등
- * 중국 3억 2,000만 달러, 일본 1억 6,000만 달러, 한국 9,000만 달러 수출(UNComtrade)

'21~'25년 포르투갈의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2025년 6월 점유율	증감률 (2024년/2025년)
1	스페인	20,126	21,653	21,634	21,543	11,711	26.17	5.2
2	독일	8,293	8,953	9,081	10,249	6,358	14.2	29.9
3	프랑스	9,868	10,192	10,921	10,063	5,430	12.1	-0.7
4	미국	4,195	5,340	5,661	5,573	2,771	6.2	-7.0
5	이탈리아	3,408	3,687	3,566	3,732	2,010	4.5	1.1
6	영국	3,910	4,044	3,943	3,784	1,996	4.4	-2.0
7	네덜란드	2,942	3,300	2,926	2,976	1,538	3.4	0.7
8	벨기에	1,887	1,987	2,147	2,133	1,189	2.7	-0.8
9	폴란드	1,083	1,133	1,212	1,241	691	1.5	2.9
10	스웨덴	895	1,046	1,144	1,136	597	1.3	0.6
19	중국	808	662	832	643	321	0.7	-0.1
30	일본	352	262	416	306	157	0.4	1.2
43	대한민국	195	203	192	191	86	0.2	-9.7
	계	75,243	82,560	83,909	83,014	44,924	77.77	4.1

자료: UNComtrade('25년 8월 25일 기준)

- (수출 품목) 중공업 생산품 외 소비재 및 식품 수출 활발
 - 자동차(HS Code 8703), 석유제품(HS Code 2710), 의약품(HS Code 3003)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자동차 타이어, 신발, 올리브유 등 다양한 소비재 및 가공식품 수출도 포함

'21~'25년 포르투갈의 HS Code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2025년 6월 점유율	증감률 (2024년/2025년)
1	자동차(8703)	4,085	4,247	4,348	4,339	2,495	5.6	3.1
2	석유제품(2710)	3,433	5,707	4,388	4,777	1,994	4.4	-25.3
3	의약품(3003)	213	647	1,381	2,043	1,950	4.3	210.0
4	자동차부품(8708)	3,333	3,257	3,569	3,395	1,922	4.3	3.6
5	고무타이어(4011)	1,285	1,376	1,571	1,84	840	1.9	-1.4
6	의약품(3004)	1,139	1,133	1,358	1,448	769	1.7	4.8
7	신발(6403)	1,688	1,827	1,695	1,493	758	1.7	3.1
8	계측기(9029)	1,233	1,382	1,471	1,416	688	1.5	-10.9
9	절연전선(8544)	870	1,030	1,146	1,102	636	1.4	5.0
10	종이(4802)	1,313	1,838	1,325	1,300	626	1.4	-11.6
	계	75,243	82,560	83,909	83,014	44,924	28.2	4.1

자료: UNComtrade('25년 9월 4일 기준)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수입 또한 수출과 유사하게 EU 역내 국가 위주로 이뤄지는 추세
 - '25년 1~6월 수입액 기준, 수입 상위 3개국은 스페인(195억 달러), 독일(73억 달러), 프랑스(45억 달러) 순임
 - 주요 역외 수입 대상국은 중국(30억 달러, 6위), 브라질(16억 달러, 9위), 미국(14억 달러, 10위) 등
- * 한국 4억 5,000만 달러, 일본 2억 3,000만 달러 수입(UNComtrade)

'20~'25년 포르투갈의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2025년 6월 점유율	증감률 (2024년/2025년)
1	스페인	32,289	36,818	38,349	37,241	19,520	31.9	4.8
2	독일	12,211	12,717	13,143	12,777	7,264	11.9	8.9
3	프랑스	6,594	7,032	7,891	8,143	4,475	7.3	8.8
4	네덜란드	5,245	5,788	6,059	6,309	3,766	6.2	24.7
5	이탈리아	5,064	5,569	5,636	5,812	3,115	5.1	4.3
6	중국	4,665	5,872	5,646	5,369	2,980	4.9	12.6
7	벨기에	3,055	3,646	3,575	3,537	2,026	3.3	38.2
8	아일랜드	949	892	1,769	2,081	1,730	2.8	101.2
9	브라질	3,015	4,809	3,967	3,908	1,602	2.6	-16.7
10	미국	2,368	3,686	2,438	2,529	1,373	2.2	16.5
20	대한민국	632	967	939	901	451	0.7	0.4
31	일본	712	621	545	526	234	0.4	-18.0
59	홍콩	127	166	106	108	49	0.1	3.7
계		98,337	115,291	113,486	112,645	61,239	79.4	7.8

주: 한국의 교역통계는 제3국 경유 물품에 대한 집계 방식 차이로 한국무역협회 교역 통계와 큰 차이 有
 자료: UNComtrade('25년 8월 25일 기준)

- (수입 품목) 자동차 관련 품목의 수입이 두드러지며, 그 외에도 원유제품, 의약품, 반도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 포르투갈의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HS Code 8703), 원유제품(HS Code 2709), 질소 함유 헤테로고리 화합물(HS Code 2933)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어 자동차 부품, 의약품, 석유제품, 등이 상위권 차지
 - '25년 6월 기준 자동차 수입은 7.5%로 수입액 중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국 내 자동차 제조공장 운영 및 애프터마켓 수요로 자동차 부품의 안정적인 수입 수요도 유지

'21~'25년 포르투갈의 HS Code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2025년 6월 점유율	증감률 (2024년/2025년)
1	자동차(8703)	4,068	4,949	7,175	7,055	4,561	7.45	22.0
2	원유제품(2709)	4,783	7,798	5,925	6,414	2,833	4.63	-12.9
3	자동차부품(8708)	3,192	3,467	3,587	3,576	2,011	3.28	4.5
4	질소 헤테로고리 화합물(2933)	552	397	1,306	1,639	1,732	2.83	168.5
5	의약품(3004)	2,349	2,477	2,636	2,759	1,643	2.68	15.3
6	석유(2710)	2,472	3,930	3,359	2,681	1,248	2.04	-13.3
7	전자집적회로(8542)	1,345	1,643	1,379	1,761	1,076	1.76	36.9
8	천연가스(2711)	2,316	5,113	2,435	1,658	896	1.46	9.5
9	핵산(2934)	124	218	219	479	601	0.98	377.0
10	트랙터(8701)	452	479	590	588	259	0.42	-26.6
계		98,337	115,291	113,486	112,645	61,239	27.53	7.8

자료: UNComtrade('25년 9월 4일 기준)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양국 교역은 '2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며, 포르투갈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기존의 주력 수출 상품 이외에 화장품, 의료기기(미용, 치과), 식품 등도 진출 확대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교역 규모
 - (수출) 한국의 對포르투갈 수출은 '24년 13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25년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9.7% 감소하여 하락세 기록
 - (수입) 한국의 對포르투갈 수입은 '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23년 6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4년 소폭 감소하여 5억 2,000만 달러 기록했고, '25년 6월 기준 2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6% 감소
 - (무역수지) 한국의 對포르투갈 무역수지는 '23년 4억 9,000만 달러에서 '24년 7억 8,000만 달러로 개선되어 흑자 폭 확대. '25년 6월 기준, 전반적인 수출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억 3,100만 달러 흑자 기록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24년 기준 선박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약 33%를 차지하며 '23년에 이어 1위를 유지하였으며, 의약품과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 비중이 확대된 점이 특징적

한국의 對포르투갈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1,302	18.5		총 수출	441	-29.7
1	선박	370	63.6	1	집적회로반도체	68	9.9
2	의약품	161	36.5	2	합성수지	56	-40.0
3	집적회로반도체	124	6.9	3	의약품	49	86.8
4	합성수지	91	-11.6	4	전기자동차	42	-15.7
5	중후판	76	-0.8	5	승용차	28	-28.3
6	승용차	61	-7.7	6	중후판	21	51.7
7	전기자동차	46	-31.9	7	회전기기 부분품	17	-5.5
8	아연도강판	29	14.7	8	아연도강판	13	25.1
9	열연강판	25	6,375.5	9	기타 자동차	12	-22.8
10	회전기기 부분품	24	3.1	10	열연강판	8	67.2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7월 25일), MTI 4단위 기준

- (수입) '24년 기준 의약품, 편직제의류, 타이어 순으로 수입 규모가 컸으며, 이외에 신발, 식물제의류, 기타 섬유제품 등 섬유제품 및 경공업 제품이 대다수 차지

* 해당 수입 구조는 스페인 인디텍스 그룹(ZARA 브랜드)의 포르투갈 생산분 및 독일 콘티넨탈社의 포르투갈 공장의 타이어 생산분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

한국의 對포르투갈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519	-14.6		총 수입	210	-30.6
1	의약품	147	-15.0	1	편직제의류	55	-12.7
2	편직제의류	113	-16.6	2	원동기	25	81,747.9
3	타이어	62	-26.3	3	타이어	25	-35.2
4	식물제의류	43	-10.0	4	식물제의류	19	-21.9
5	집적회로반도체	17	-8.9	5	의약품	12	-87.7
6	신발	14	-33.9	6	집적회로반도체	8	4.4
7	기타어류	11	7.5	7	신발	7	11.6
8	동조가공품	6	184.3	8	기타어류	4	-3.7
9	기타 섬유제품	5	1.3	9	기타 섬유제품	3	29.0
10	주류	5	-18.5	10	주류	3	-2.8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7월 25일), MTI 4단위 기준

• 한국의 포르투갈 내 수출 시장 점유율

- (자동차) '25년 1~5월 신차 등록 기준, 포르투갈 내 기아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4.1%, 2.5% 기록
* 동 기간 주요 브랜드 점유율은 푸조(Peugeot) 10.8%, 다시아(Dacia) 7.6%, 벤츠(Mercedes-Benz) 7.6%, 르노(Renault) 7.6%, BMW 6.2%, 폭스바겐(Volkswagen)이 5.7% 등이 상위권 차지(ACAP (포르투갈 자동차협회), '25년 7월 25일 기준)
- (화장품)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유통 체인 및 소매 유통업체들이 증가하는 추세
* 최근 Pluricosmetica와 Victoria Cosmetics 등 한국 화장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24년부터 Occasion2smile, ForeverK, Glowthie 등 한국 화장품(K-뷰티)만 판매하는 전문 취급 매장이 증가세
- (식품) 포르투갈에 한류 열풍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게 진입했지만, 한국 음식과 스낵류의 인기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농심, 하이트진로, 영풍과 같은 주요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직접 수출 방식으로 프랑스계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AUCHAN을 비롯한 주요 유통망에 진출
* 리스본, 포르투, 코임브라, 알가르브 등 주요 도시에 한국 식당이 속속 개점하고 있음
- (치과 중심 의료기기) 한국산 치과 장비와 임플란트 솔루션은 우수한 품질과 가성비를 강점으로 포르투갈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음
* 디오, 오스텀, 덴티스, 바텍 등 한국 치과 장비 기업들이 포르투갈 시장에 안정적인 진출
* HS Code 902129(치과용 장비 및 부품)의 경우, 한국은 전 세계 수입 비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2.2%), 스페인(51.3%)과 네덜란드(13.9%)의 뒤를 잇고 있음

최근 3년간 포르투갈 치과용 장비 및 부품(HS Code 9021.29)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23년/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37,061	34,223	39,661	100	100	100	15.9%
1	스페인	15,684	17,374	20,348	42.3%	50.8%	51.3%	17.1%
2	네덜란드	3,270	3,396	5,500	8.8%	9.9%	13.9%	61.9%
3	한국	4,785	3,336	4,856	12.9%	9.8%	12.2%	45.5%
4	프랑스	1,287	1,412	2,627	3.5%	4.1%	6.6%	86%
5	독일	4,267	3,132	1,762	11.5%	9.2%	4.4%	-43.7%
6	중국	603	1,056	1,452	1.6%	3.1%	3.7%	37.6%
7	브라질	2,006	703	1,070	5.4%	2.1%	2.7%	52.3%
8	이탈리아	3,715	1,653	1,034	10%	4.8%	2.6%	-37.4%
9	미국	241	218	229	0.7%	0.6%	0.6%	5.11
10	남아프리카	50	163	221	0.1%	0.5%	0.6%	35.5%

자료: GTA('25년 9월 5일 기준)

□ 포르투갈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포르투갈 진출전략 : 포 O사, 한국 화장품 브랜드 5개사 이상과 직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EU의 화장품 등록 포털인 CPNP 등록이 필수적임
 - 독창적이고 성능이 효과적이며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제품 선호
 - 유연한 MOQ(최소 주문 수량) 및 뚜렷한 SNS 존재감이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
- 필수 인증 : CPNP 및 INFARMED 등록
 -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CPNP 등록이 기본 요건이나, 포르투갈은 타 EU 국가와 달리 화장품에 대한 엄격한 통관 관리를 시행
 - 이에 따라 포르투갈 의약품 보건청(INFARMED) 등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바이어가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성약 소요기간 : 브랜드별 차이는 있었으나, 현지 시장 내 인지도가 아직 강하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 평균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소요 기간을 예상하는 것이 바람직
- 바이어 발굴경로
 - 브랜드 A : 바이어가 브랜드를 사전에 인지 → KOTRA 리스본무역관이 전시회 현장에서 직접 미팅 주선
 - 브랜드 B : 초보 수출기업 → 2024 K-뷰티 무역사절단을 통해 대면 미팅 → 2025 내수·초보 수출기업 지원 사업에서 재연결 및 리스본무역관이 지속적으로 소통 중재
 - 브랜드 C : 바이어가 기존 고객을 통해 브랜드를 접함 → 리스본무역관이 온라인 미팅 주선 및 직수입 지원
 - 브랜드 D : KOTRA 지사화 서비스를 통해 바이어 소개 → 샘플 제공, 바이어 요청에 따른 추가 자료 전달, 전 과정에서 소통 중재 역할 수행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동 바이어 사례는 리스본무역관의 연간 마케팅 지원과 내수·초보 수출기업 지원 사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임
 - 포르투갈 진출을 원하는 기업은 CPNP 확보와 더불어 포르투갈 INFARMED 등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또한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제품 기획, SNS 마케팅 강화, 바이어 요구에 맞춘 유연한 MOQ 정책 등을 통한 차별화 필요



성공 사례로 보는 포르투갈 진출전략 : G사의 미용 의료기기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G사는 피부 전문 클리닉과 에스테틱 시장을 겨냥한 고기능성 화장품 및 미용기기 브랜드로, 피부재생, 미백, 진정 등 다양한 피부 고민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
 - 특히,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성분 배합과 의료 미용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제품력에서 차별화되어 있으며, 포르투갈 내 유사 판매 제품 대비 안전성, 효과, 신뢰도 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음
 - 전문가 전용 제품 및 미용기기를 원스톱으로 공급 가능하다는 점도 현지 바이어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필수 인증
 - 화장품의 경우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CPNP 확보가 기본 요건이며, 포르투갈은 의약품·보건청 (INFARMED) 등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바이어가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미용기기의 경우 CE 인증 취득이 필수적이며, 포르투갈 정부의 추가적인 위생 또는 수입 관련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성약 소요기간
 - 본 계약은 양사가 '25년 6월 첫 미팅 이후 각종 수입 및 인증 서류 준비, 샘플 테스트, 조건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약 3개월 후인 8월 말에 독점 계약 체결
 - 화장품 및 미용기기 관련 서류 준비와 현지 심사 절차 때문에 성약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 바이어 발굴경로
 - 포르투갈 바이어는 KOTRA 리스본무역관 주선 하에 한국 기업과 연결
 - 리스본무역관에서 바이어의 방한 일정에 맞춰 1:1 대면 미팅을 주선했으며, 이후 샘플 송부, 상담 중재, 협상 지원 등 전반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한국의 프리미엄 화장품 및 미용기기에 대한 포르투갈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중요
 - 향후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규제 준수와 인증 절차 준비,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 특히, 샘플 제공, 초기 거래에 대한 조건 완화(6개월 트라이얼, 유연한 MOQ 설정 등) 등의 전략이 바이어 신뢰 확보 및 장기 독점계약 성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 포르투갈의 최대 수입 파트너 중 하나로,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하며 기계류, 전자제품, 섬유·완제품, 소비재 전반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
 - 가격 경쟁력, 공급망 규모, 다양한 품목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나, 고급 기술 장비(의료기기, 전력장비 등) 분야에서는 여전히 EU·일본·한국 대비 신뢰도가 낮은 편
- (일본) 포르투갈 수입 시장에서 자동차, 전자부품, 의료기기 등 첨단·정밀 장비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품질과 기술력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 특히 자동차 및 산업용 기계 분야에서 강세
 - EU 내 현지 생산 거점이 한국·중국 대비 제한적이나, '25년 9월 포르투갈-일본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포르투갈과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도 있음

포르투갈 수입 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국가명	2022년 ^G	2023년 ^G	2024년 ^G	2025년 6월 누계 ^U
중국	5.1	5.0	4.8	4.9
일본	0.5	0.5	0.5	0.4
한국	0.8	0.8	0.8	0.7
베트남	0.5	0.5	0.5	0.5

자료: G는 Global Trade Atlas('25년 9월 4일 기준), U는 UNComtrade('25년 9월 4일 기준)

□ 수입 규제 및 비관세장벽은 기본적으로 EU 규정 적용

- 한국과 EU는 '11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98.7%의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 포르투갈에서 부가가치세(VAT)는 본토 기준 제품에 따라 23%, 13%, 6%가 적용되며, 아조레스(16%, 9%, 4%)와 마데이라(22%, 12%, 5%) 등 자치령에서는 차등 세율 운영
 - 세관은 국세청(AT, Autoridade Tributaria e Aduaneira) 관할
 - 세관은 관세율 포함 수출입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Pauta Aduaneira'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 공개
 - 포르투갈은 품목별 기술, 건강 및 위생 규격 등을 EU 지침에 따르고 있으며, 특히 화학제품, 화장품, 의약품, 농산물, 식품 및 사료,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등의 의무 요건에 주의해야 함
 - 포르투갈의 복잡한 행정 절차가 외국 기업들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
 - 포르투갈 정부는 'SIMPLEX'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수입·통관 절차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
- * SIMPLEX는 정부 산하 공공행정 현대화청(AMA)이 주도하는 행정 간소화 프로그램으로 '25년에 최신 버전 도입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자동차·펄프·섬유 등 전통 제조업, 포르투갈 수출 경쟁력 견인
 - '24년 포르투갈의 국내 총부가가치(GVA) 중 농업은 2.3%에 불과한 반면*, 제조업은 13.6%, 서비스업은 58.2% 차지(INE)
 - * 포르투갈 경제에서 관광, 금융, 정보기술(IT)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업 부문은 점차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와인, 올리브 오일 등 특정 농산물은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제조업 부문에서 자동차 부품, 섬유, 의류, 신발, 식품 가공 등 전통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전체 수출에서 정유(5.8%), 자동차(5.2%), 자동차 부품(4.1%)이 높은 비중 차지

(참고) 최근 포르투갈 주요 산업의 전체 수출 비중 추이

2023년			2024년		
HS Code	산업명	비중	HS Code	산업명	비중
2710	정유	5.3%	2710	정유	5.8%
8703	자동차	5.2%	8703	자동차	5.2%
8708	자동차 부품	4.3%	8708	자동차 부품	4.1%
6403	신발	2.0%	3003	의약품	2.5%
4011	타이어	1.9%	1509	올리브유	2.0%

자료: GTA('25년 8월 18일)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자동차
 - '24년 자동차 산업 매출은 426억 유로(약 69조 4,000억 원) 규모로 포르투갈 전체 기업 매출액의 7.7% 차지(Forbes)
 - 포르투갈에서 생산된 차량의 대부분('24년 기준 97.7%)은 수출되며, 주요 수출 시장은 유럽 국가들(87.6%)로, 그중 독일(23.7%), 이탈리아(13.8%), 프랑스(10.8%), 스페인(9.9%)이 주요 수출 대상국(ACAP)
 - * 포르투갈에서 판매되는 완성차 대부분은 수입산(특히 독일, 프랑스, 스페인 브랜드)이며, 미국 부품이나 기술에 일정 부분 의존하므로 미국산 부품·기술에 높은 관세가 적용되면, 포르투갈로 수입되는 완성차 가격에도 부담으로 작용. 특히 전기차·하이브리드는 미국산 배터리, 반도체, 전력 전자 부품과의 연계성이 있어 간접 비용 상승 가능성 있음

포르투갈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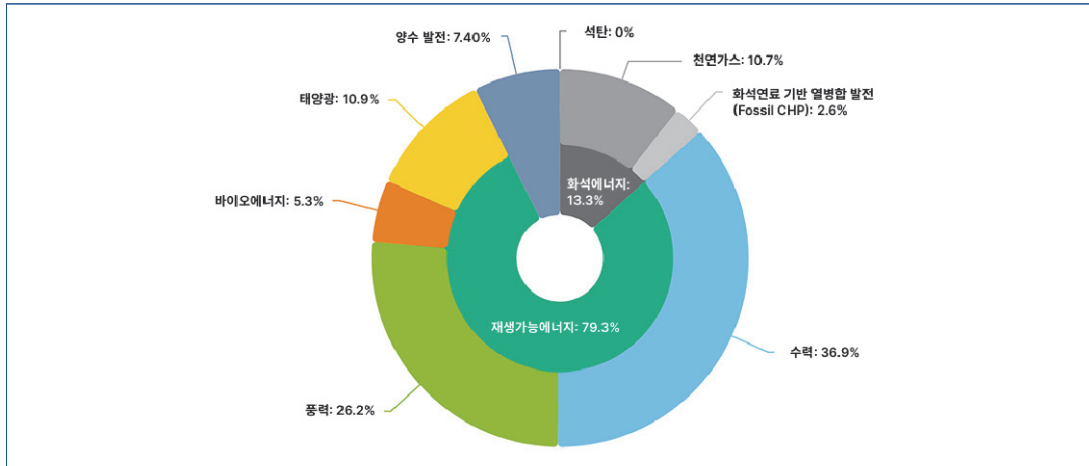
(단위: 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생산량	345,688	264,236	289,954	322,404	318,231	332,546	177,825
판매량	N.D.	N.D.	N.D.	187,161	236,053	249,269	143,012

자료: 포르투갈 자동차협회(ACAP)

- 포르투갈 내 차량 제조는 독일, 프랑스, 일본 제조업체들이 주도하며, 폭스바겐, 스텔란티스(르노 포함), 토요타, 미쓰비시 공장 외에 자국 브랜드로 카에타노 버스 공장이 가동 중
- '25년 3월, 폭스바겐은 '27년 유럽 출시 예정인 저가 엔트리급 전기차를 포르투갈 파르멜라 공장 에서 생산할 계획임을 발표했으며, 저가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폭스바겐 전략의 일환
- 포르투갈은 전기차 생태계로 전환 중이고, 전기차 판매가 증가세이나, 높은 차량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는 여전히 신중한 편이므로, 포르투갈 정부는 '25년 무공해 승용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24년 대비 35% 증가한 1,350만 유로(약 220억 원)로 책정,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에너지
 - '25년 1~7월 기간동안 포르투갈에서 총 3만 1,955GWh의 전력이 생산되었으며(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 이 중 재생에너지가 79.3% 차지(전년 동기 83.4% 대비 소폭 감소)
 - * 동 기간 포르투갈은 재생에너지 통합 비율에서 노르웨이(97.6%), 덴마크(87%), 오스트리아(82.3%)에 이어 유럽 4위 기록
 - '25년 7월까지, 수력발전이 총 발전량의 36.9%(2만 2,360GWh)로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풍력발전은 26.2%(7,826GWh), 태양광발전은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을 모두 포함해 10.9%(3,647GWh)를 차지
 - * 중앙집중형 :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
 - 분산형 : 주택, 상업용 건물, 소규모 농업 시설 등 소규모 설치
 - '25년 1~7월 동안 포르투갈의 전력 시스템은 6,884GWh의 수입과 2,927GWh의 수출을 기록해 수입 비중이 높음
 - 같은 기간 중 화석연료 기반 전력 생산은 전체의 13.3%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기간 대비 4.6%p 증가 기록

〈'25년 1~7월 포르투갈의 에너지원별 생산 동향〉



자료: 포르투갈 재생에너지협회(APREN)

• 플라스틱·고무

- '24년 포르투갈의 플라스틱·고무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 플라스틱·고무 제품 및 관련 서비스 매출은 약 58억 유로(약 9조 4,000억 원)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전체 산업 중 5위 규모를 차지(INE)

포르투갈 플라스틱·고무 관련 매출 동향

(단위: 십억 유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액	증감률	총액	증감률	총액	증감률	총액	증감률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판매 및 서비스	4.9	22.5%	5.8	18.4%	5.6	-3.5%	5.8	3.6%

자료: INE, IAPI

- 수출 시장은 유럽 내 인접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24년 기준 주요 수출 대상국은 스페인(17억 6,000만 달러, 37.4%), 프랑스(6억 6,000만 달러, 14.5%), 독일(3억 1,000만 달러, 6.9%), 네덜란드(2억 8,000만 달러, 5.3%) 등으로 포르투갈 플라스틱 산업이 유럽 내 공급망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GTA)
- '25년 이후 전망도 비교적 긍정적인데, '25년 생산 규모 56억 9,000만 달러, '25~'29년 연평균 성장률(CAGR) 0.6%, '25년 부가가치 19억 6,000만 달러 규모, 연평균 성장률 0.8% 전망
- 고무·플라스틱 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학계 스피노프와 기술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화학연구센터(CIQUP), 금형·특수공구 및 플라스틱 산업 기술센터(CENTIMFE) 같은 전문 연구센터와 협업 강화

- 지속가능성이 핵심 전략 과제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국가 에너지 및 기후계획(2021~2030)과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 재활용 기술 확산, 바이오 기반 소재 확대 등 고무·플라스틱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 중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포르투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유럽 국가의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포르투갈 무역투자청(AICEP)에 따르면, '24년 포르투갈의 FDI 거래 규모는 총 132억 유로(약 21조 5,000억 원)로, 포르투갈 법인 지분 투자가 111억 유로(약 18조 8,000억 원)로 주요인 * 이 가운데 35억 유로는 부동산 투자에 포함
 - '24년 FDI는 유럽 국가의 투자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스페인 38억 유로(약 6조 2,000억 원), 룩셈부르크 31억 유로(약 5조 5,000억 원), 네덜란드 13억 유로(약 2조 1,000억 원)가 기여
 - 포르투갈의 FDI 프로젝트 유치 건수는 '24년 한 해 동안 186건을 기록, 전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로 집계

'21~'25년 포르투갈 FDI 추이

(단위: 백만 유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8,851.6	11,340.8	11,065.8	13,163.7	-1,062.7

자료: 포르투갈 중앙은행(BP)

- '25년 1분기의 포르투갈의 FDI 거래액은 -11억 유로(약 -1조 8,000억 원)로, 포르투갈 내 기업이 같은 그룹 내 해외법인에 대해 보유한 부채 12억 유로(약 2조 원)가량 상환한 것이 원인
 - * '24년 1분기 포르투갈의 FDI 거래액은 7억 유로(약 1조 1,000억 원)
-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의 포르투갈 부동산 직접투자는 9억 6,470만 유로(약 1조 6,0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6억 6,430만 유로(약 1.8조 원) 대비 많이 증가한 수준
- 한편, 분기별 FDI 잔액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은 '25년 2분기 기준 +3.5%로 나타남(BP, '25년 8월)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첨단 기술, 관광·부동산 등 위주로 투자 유입 지속
 - (금속 가공·자동차 부품·기계 제조 분야)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는 포르투갈이 오랜 기간 강점을 쌓아온 분야이며, 최근에도 외국인 투자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자동차 부품 생산기지로 포르투갈을 활용

- (재생에너지 산업) 포르투갈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성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EU의 에너지 전환 기조와 맞물려 투자 유치 활발
- (ICT, IoT 및 헬스텍 산업) 글로벌 IT 기업들이 리스본과 포르투에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하면서 포르투갈의 디지털 산업 생태계 확대
- (관광·부동산 산업) 포르투갈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 축이며, '24년 전체 GDP의 약 11.9% 차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전체 FDI의 큰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리스본과 포르투를 중심으로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개발 활발

'24~'25년 포르투갈 FDI 사례

프로젝트	기업(투자자)	분야	투자 금액	투자 국가	세부사항
Manufacturing Facility	CALB	리튬 배터리	20억 유로 (약 3조 3,000억 원)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네스(Sines)에 공장 설립이 진행 중임 • 해당 공장은 1,8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포르투갈 GDP의 4% 이상을 차지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Logistics Center	메르카도나 (Mercadona)	소매 유통업	2억 9000만 유로 (약 4,722억 원)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회사 최대 규모이자, 포르투갈 내 두 번째 물류센터(44만㎡) • 630개의 일자리 창출
Manufacturing Facility	Sports Gear	신발	1,530만 유로 (약 249억 원)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베이루(Aveiro)에 공장 설립이 진행 중임 • 운영 첫 해에 20만 켤레의 스포츠 신발을 생산할 예정임
Manufacturing Facility	Wirstchat	농업	400만 유로 (약 65억 원)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렌테주(Alentejo)에 유럽 최초의 공장 설립이 진행 중임 • 해당 공장은 '26년 12월에 생산을 시작하여 유럽 시장에 특수 비료와 작물 보호 제품을 공급할 예정임
Manufacturing Facility	Körber	IT	-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솔루션의 기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신규 제조 시설 설립이 진행 중임
Manufacturing Facility	LD Helmet	항공	330만 유로 (약 53억 7,000만 원)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폰트데소르(Ponte de Sor)에 생산 시설을 준공함
Operations Center	Cyncly	IT	-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본에 유럽 시장을 위한 운영 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5년까지 직원 60명을, '27년까지 300명을 채용할 계획임
R&D Center	Intapp	IT	-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본에 R&D 센터를 개소함
Technology Hub	Richemont	IT	-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외 지역 최초의 테크 허브를 개소하였으며, '28년까지 400명을 채용할 예정임

주: 금액은 각 기업에서 발표한 투자 예정액

자료: 포르투갈 무역투자진흥청(AICEP), Jornal de Negócios, Jornal de Notícias, Forbes

□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등)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중국의 투자는 포르투갈의 재정 위기 전후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24년 말 기준 39억 6,000만 유로 투자로 포르투갈 FDI에서 제4위 투자국이자 유럽국 제외 시 제1위 투자국임(BP stat)
 - 중국 자본은 포르투갈의 에너지, 금융, 의료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 예상

중국 기업의 對포르투갈 투자 사례

포르투갈 회사명	주요 투자 내용
Energias de Portugal(EDP)	에너지회사로 중국 삼협공사가 21.8% 지분 보유
Fidelidade	최대 보험사로 중국 푸싱 그룹이 84.9% 지분 소유
Redes Energéticas Nacionais (REN)	전기·가스 운송회사로 중국 국가전망공사가 25.0%, Fidelidade가 5.3% 지분 소유
Luz Saúde	대형 헬스케어 그룹으로 Fidelidade가 대주주(99.85%)
Millennium BCP (Banco Comercial Português)	Fidelidade는 포르투갈 최대 민간 은행의 지분 20.0%를 보유하고 있음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포르투갈의 對한국 투자 현황

- '25년 상반기 기준 포르투갈의 對한국 투자 실적은 총 31건, 누적 투자액 3억 5,000만 달러
 - 주로 서비스업 위주(67%)로 투자했으며, 부동산(1억 6,000만 달러, '13년)과 운수업(9,942만 달러, '10년)을 제외하면 제조업 투자는 9,173만 달러에 불과
 - 對한국 투자는 '03~'13년에 집중, '14년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의 사례는 전무

포르투갈의 對한국 FDI 추이

(단위: 건, 천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2000~2025년 누적
신고건수	1	-	1	-	-	-	1	31
신고금액	88	-	91	-	-	-	450	505,022
도착금액	-	-	91	-	-	-	-	353,87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25년 8월 신고 기준)

- EDP그룹은 포르투갈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로, 자회사 EDP리뉴어블(EDPR) 스페인을 통한 한국 해상 풍력시장 진출
 - '19년, EDPR과 프랑스 기업 엔지(ENGIE)가 합작으로 오션원즈(OW)를 설립했으며, '19년 11월 OW는 한국부유식풍력(KF Wind) 사업 인수
 - '24년 8월, KF Wind는 울산에서 1,125GW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30년 이후 전력 생산 계획
 - '25년 5월, KF Wind는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육상 전력 송전선 설계를 위해 한국 기업 유신과 계약 체결

□ 한국의 포르투갈 투자 진출

- '25년 1분기까지 한국의 對포르투갈 누적 투자액은 약 4억 8,500만 달러
 - 기존에는 제조업 위주였으나, 의료기기 영업법인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한국의 對포르투갈 투자 진출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투자 금액	159,922	192.2	53,889	-66.3	15,037	-72.1	326	-61.6
신규 법인 설립 건수	2	-33.3	2	0.0	1	-50.0	1	0.0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세계 1위 기업인 한국의 씨에스윈드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로 '22년 포르투갈 풍력타워 제조기업 ASM Industries에 투자(지분 인수) 후 지속적인 생산 확대
 - 포르투갈 법인 해상풍력타워 공장 증축으로 생산 능력을 연간 4만 톤에서 14만 톤으로 확대 추진하며,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 해상풍력 부품 제조를 위한 첨단 기술을 갖출 예정
 - '24년, 포르투갈 현지 법인은 기존 공장 인접 부지 두 곳을 매입한 후 3억 유로(약 4,885억 원) 규모의 신공장을 신설했으며, 이곳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기초시설이 건설될 예정
- 한온시스템도 전기차 전용 컴프레서 생산 공장 증설, '24년 신규 엔지니어링 센터 개관 등 사업 확장 중으로 포르투갈 공장이 전기차용 컴프레서의 유럽 주요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 중
- 최근 임플란트 및 치과용 기기 기업들의 포르투갈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진출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스페인 법인에서 포르투갈을 관할하는 경우도 다수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풍력터빈 타워 제조 기업 씨에스윈드社,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정보) 세계 1위 풍력 타워 제조 기업
- (성공사례)
 - 유럽의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22년 포르투갈 풍력타워 제조기업 ASM Industries에 투자(지분 인수) 후 지속적인 생산 확대
 - '24년 기준 매출액은 1억 8,927만 유로(약 3,081억 원)에 달하며, 생산량 대부분을 유럽 내 국가 및 미국으로 수출
 - '24년, 씨에스윈드는 기존 시설 인근의 부지를 인수한 뒤 3억 유로(약 4,885억 원)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이 부지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기초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를 통해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기대
- (시사점) 현지 제조 기업 인수 진출 방식을 통해 단기간에 유럽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생산기반과 유통망을 동시에 확보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차량용 컴프레서 제조 기업 한온시스템社, 포르투갈 및 유럽 시장 공략 위한 법인 설립

- (기업정보) 혁신적 열·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 (성공사례)
 - '98년, 포르투갈 팔멜라 산업단지에 첫 공장을 설립하며 포르투갈 진출
 - '24년, 포르투갈 팔멜라에 신규 엔지니어링 센터를 개소하며 유럽 주요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
 - 전기 및 열관리 기술 분야에서 e-모빌리티 전환에 기여 중
- (시사점) 초기 진출 후 설비 확대 및 기술 거점을 강화하며 포르투갈을 유럽 내 생산 및 연구개발 허브로 육성한 사례로, 단순 제조기지에서 기술 중심의 고도화 전략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식에서의 시사점 존재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기업 디오社, 포르투갈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정보) 치과용 임플란트 및 디지털 솔루션 판매
- (성공사례)
 - 포르투갈의 'CPM Pharma'와 '19년 현지 합작법인 설립
 - '24년, 포르투갈 현지 최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병원과 150억 원 규모의 임플란트 공급계약 체결
 - '25년 1분기, 포르투갈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 (시사점) 현지 합작법인을 통한 시장 진입과 유통망 구축, 이에 따른 대형 공급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한 사례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안착과 점유율 확대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의약품 제조 기업 셀트리온社, 포르투갈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정보) 의약품 제조 기업
- (성공사례)
 - '24년 2월 포르투갈 법인 설립 및 같은 해 12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출시하며 현지 직판 개시
 - 직판 개시 후, 해당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는 국가 입찰 수주에 성공
- (시사점) 현지 법인 설립 후 직접 판매 전환을 통해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국가 입찰 수주를 통해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 확보한 능동적인 진출 전략으로서의 의의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노동 시장 관련 제약
 - 엄격한 노동법으로 해고가 어렵고, 노동 계약 관련 분쟁이 길어질 수 있음
 - 생산성 대비 인건비가 낮은 편이지만, 고급 기술 인력은 부족할 수 있음
- 행정 및 규제 절차의 복잡성
 - 기업 설립 및 각종 인허가 절차가 느리고 복잡한 편이며, 특히 건설, 환경, 에너지 분야는 인허가 취득까지 수년이 소요되기도 함
 - 조세제도 자체는 EU 기준에 맞춰져 있으나, 세무·회계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행정기관의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
- 시장 규모의 한계
 - 포르투갈 자체 내수 시장은 약 1,000만 명으로 작은 편이기에 포르투갈 자체 시장보다는 EU 및 포르투갈어권 아프리카·브라질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언어·문화적 요인
 - 공용어가 포르투갈어라서 영어만으로는 공공기관·중소기업 거래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기업 문화도 다소 보수적이고 의사결정 속도가 느린 편이므로 외국 기업 입장에서 신속한 비즈니스 전개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음

2. 유망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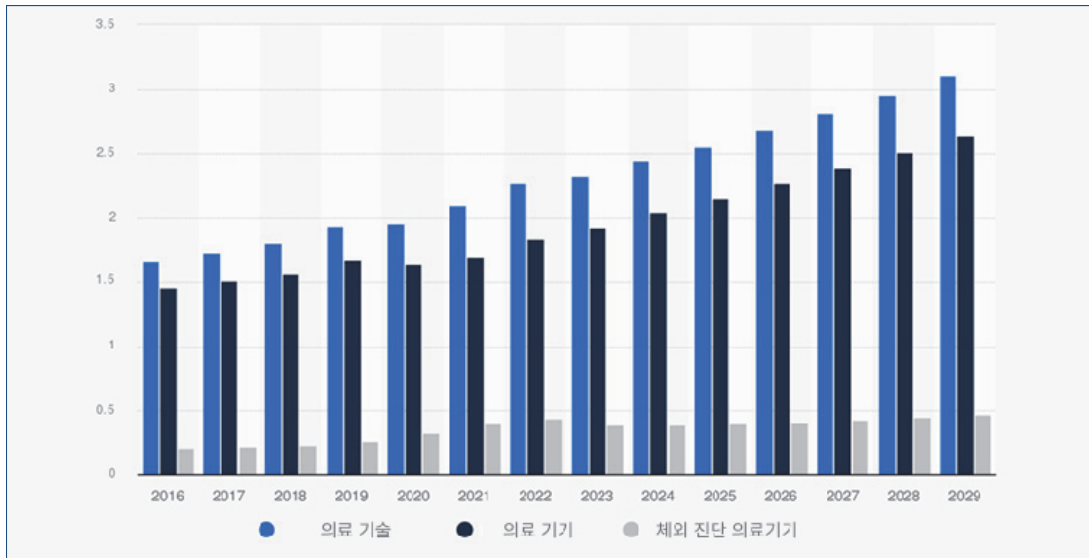
가. 의료기기 산업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Statista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의료기기 시장은 '25년까지 23억 7,000만 달러, '30년까지 28억 4,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심혈관 의료기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5년 말 기준 3억 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디지털 헬스 기술(웨어러블 기기, 원격진료 플랫폼 등) 도입이 의료 서비스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산업 성장에 기여 중
 -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질병 관리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확대 중
- 포르투갈의 헬스케어 시장은 수입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 관련 및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세
 - 특히, 팬데믹 이후 원격진료나 의료정보시스템 같은 디지털화가 중요한 추진 과제로 대두되면서 EU 기금 활용 등을 통해 의료 기술 향상에 노력
 - * 포르투갈의 의료기술 시장 : '19년 19억 4,000만 유로 → '25년 25억 6,000만 유로(32% 성장), '29년까지 31억 1,000만 유로로 '24년 대비 21.5% 성장할 것으로 예상(Statista)
 - * 의료기기 시장의 경우, '19년 16억 8,000만 유로 → '25년 21억 5,000만 유로(28% 성장), '29년에는 26억 4,000만 유로(22.8% 성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Statista)
- 포르투갈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국가보건서비스(NHS) 하에 운영되며, '23년 기준 공립 병원은 전체 병원의 약 46%를 차지(242개 중 111개, INE)
 - '10년 이후 공립 병원 14곳이 문을 닫은 반면, 민간 병원 29곳이 새로 설립되면서, '16년을 기점으로 공립보다 민간 의료기관이 더 많은 구조로 전환
 - * 입원용 병상 대부분은 여전히 공립 병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총 3만 5,700개 병상 중 2만 4,000개가 공립 부문에 속함

〈'16~'29년 포르투갈 메드테크(MedTech) 시장 현황〉

(단위: 백만 유로)



자료: Statista('25년 8월 21일 기준)

- NHS 병원을 위한 구매는 보건부의 서비스 기관(SPMS)에서 관리하며, SPMS가 공식 입찰을 공고
→ 공개 입찰 전 경쟁 기업들 간의 사전 선택 과정 → 입찰 참여 업체들의 제품 설명과 견적을 포함한 제안서 병원 제출 → 병원의 제안서 검토 및 선택 과정으로 이루어짐
- 민간 병원들은 입찰 절차 없이 직접 구매를 위해 공급업체를 선택하며, AS 제고를 위해 포르투갈 현지 유통업체나 지사 보유 필요
- 최근 수출입 동향
 - HS Code 9018(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안과용 기기, 진단기기) 수입은 '24년 기준 전년 대비 16.2% 대폭 증가
 - '24년 기준 주요 수입국은 스페인(30.9%), 네덜란드(22.7%), 독일(20.2%)이며, 의료기기 주요 10대 수입국은 대부분 유럽 국가로, 이는 역외국에서 수입 시 적용되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에 기인
 - 비록 10대 수입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국은 의료기기 공급의 주요 선택지 중 하나로, 전체 수입의 0.5%를 차지하며 13위 기록

최근 3년간 포르투갈 의료용 기기(HS Code 9018)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23년/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	전체	605,913	680,890	791,283	100	100	100	16.2%
1	스페인	195,819	217,596	244,750	32.3%	32.0%	30.9%	12.5%
2	네덜란드	108,725	161,402	179,330	17.9%	23.7%	22.7%	11.1%
3	독일	134,386	119,637	159,991	22.2%	17.6%	20.2%	33.7%
4	벨기에	47,698	47,640	50,577	7.9%	7.0%	6.4%	6.2%
5	프랑스	26,222	35,583	38,254	13.4%	5.2%	4.8%	7.5%
6	중국	15,209	17,905	23,691	2.5%	2.6%	3.0%	32.3%
7	이탈리아	18,366	16,364	20,588	3.0%	2.4%	2.6%	25.8%
8	일본	3,000	8,677	15,440	0.5%	1.3%	2.0%	77.9%
9	미국	12,907	12,594	10,054	2.1%	1.8%	1.3%	-20.2%
10	아일랜드	4,467	4,339	5,024	0.7%	0.6%	0.6%	15.8%
13	한국	4,730	3,620	3,984	0.8%	0.5%	0.5%	10.1%

주: HS Code 9018(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안과용 기기, 진단기기)

자료: GTA('25년 8월 22일 기준)

- HS Code 9018 제품의 수출 관련, 포르투갈은 '24년에 전년 대비 -2.5%로 소폭 감소
- 포르투갈의 주요 수출 시장은 역사적으로 파트너십이 유지되고 있는 스페인(21.4%), 앙골라(13%), 프랑스(12.6%)이며 주요 10대 수출국은 대부분 EU 국가가 차지
- 한국은 36위(0.1%)로 수출이 미미한 수준

최근 3년간 포르투갈 의료용 기기(HS Code 9018)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23년/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	전체	185,034	211,341	205,974	100%	100%	100%	-2.5%
1	스페인	35,402	42,190	44,127	19.1%	20.0%	21.4%	4.6%
2	앙골라	41,264	35,709	26,757	22.3%	16.9%	13.0%	-25.1%
3	프랑스	16,862	22,904	25,903	9.1%	10.8%	12.6%	13.1%
4	독일	13,064	16,948	22,662	7.1%	8.0%	11.0%	33.7%
5	네덜란드	21,003	19,053	17,258	11.4%	9.0%	8.4%	-9.4%
6	미국	7,678	14,593	11,134	4.2%	6.9%	5.4%	-23.7%
7	스위스	9,104	11,031	10,552	4.9%	5.2%	5.1%	-4.3%
8	영국	3,649	4,213	7,473	2.0%	2.0%	3.6%	77.4%
9	노르웨이	3,492	5,951	6,413	1.9%	2.8%	3.1%	7.8%
10	벨기에	7,587	8,555	5,065	4.1%	4.1%	2.5%	-40.8%
36	한국	260	284	139	0.1%	0.1%	0.1%	-51.1%

주: HS Code 9018(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안과용 기기, 진단기기)

자료: GTA('25년 8월 22일 기준)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이 주요 기업으로 자리매김
 - Johnson & Johnson, Abbott Laboratories, Medtronic, Roche Holdings, Siemens Health, Philips Healthcare, GE Healthcare 등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이 포르투갈 시장에서 핵심적인 공급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병원 장비·진단기기·정밀 의료 분야에서 강세를 보임
- 포르투갈 의료기기 시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포르투갈 의료 인프라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원격진단, AI 기반 영상 분석, 환자 데이터 관리 솔루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 공공 병원 중심의 조달 시장에서 EU 기금과 정부 디지털 헬스 전략(데이터 बैं크 구축, 전자의무 기록 표준화 등)에 맞춰 기업들이 현지 병원·연구기관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
- (협업 수요) 중국 기업에 대한 의료기기 공공조달 입찰 제한에 따른 기회
 - EU 집행위원회는 '25년 6월 중국 기업들이 500만 유로(약 81억 원) 이상 규모의 의료기기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결정
 - 해당 제재는 마스크, 의수·의족, 진단 장비, 수술 기구 등 주요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품목은 특히 공공 부문에서 수입 비중이 큰 상황(EU 집행위원회 '25년 6월 20일)
 - 중국 기업들이 공공 입찰에서 제외되면서, 공공 병원과 의료 센터들은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이 포르투갈 시장에 진출할 중요한 기회로 작용 가능
- (협업 수요) 현지 혁신 플랫폼을 활용한 진출 가능성
 - 포르투갈의 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센터 및 정부 인센티브 제도는 현지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Health Cluster Portugal, HealthTech Portugal, Unicorn Factory Lisbon, Startup Braga 등은 포르투갈 메드테크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 규제 및 인증 절차 안내, △ 병원·연구소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킹, △ 프로젝트 인큐베이션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므로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지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확보 가능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포르투갈 의료기기 수요 증가세 지속
 - HS Code 9018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수입은 '23년 대비 '24년에 16.2% 증가했으며, Statista의 전망에 따르면 포르투갈 메드테크 시장은 '25년 말 약 25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29년에는 21.5% 성장하여 31억 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정형외과 기기, 치과 장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고령 인구의 특성과 재활 프로그램을 겨냥한 맞춤형 진출전략도 효과적일 수 있음
 - 시장 진입 시 현지 의료기기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협력 필요
- 미용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
 - 최근 한국산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필러, 리프팅 실, 스킨 부스터, 미용 시술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기업에 기회 요인

나. 뷰티 산업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Statista에 따르면, 포르투갈 뷰티 및 퍼스널케어 시장은 '25년에 23억 달러의 매출 기록할 전망. 특히 개인위생과 스킨케어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 기록
 - 스킨케어 시장은 '25년에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얼굴 및 선케어가 주요 부문
- 최근 수출입 동향
 - '24년 전체 화장품 수입액은 3억 3,000만 달러로 '23년 3억 100만 달러에서 약 10.5% 증가
 - '24년 기준, 수입 상위 3개국은 스페인(1억 9,000만 달러), 프랑스(6,000만 달러), 독일(2,000만 달러)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입액의 약 83.1%를 차지
 - 한국은 69만 2,000달러로 전년 대비 수입액이 26.3% 증가

최근 3년간 포르투갈 화장품(HS Code 330499)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2024년
-	전체	258,651	301,095	332,643	100.0	100.0	100.0	10.5
1	스페인	135,253	163,661	192,023	52.3	54.4	57.7	17.3
2	프랑스	57,755	67,417	64,250	22.3	23.0	19.3	-4.70
3	독일	18,015	19,039	20,233	7.0	6.3	6.1	6.3
4	이탈리아	8,123	9,696	15,827	3.1	3.2	4.8	63.2
5	네덜란드	13,619	14,345	15,656	5.3	4.8	4.7	9.1
6	덴마크	333	3,208	8,812	0.1	1.1	2.7	174.7
7	폴란드	4,803	5,181	7,556	1.9	1.7	2.3	45.8
8	벨기에	577	2,030	1,119	0.2	0.7	0.3	-44.9
9	그리스	543	708	882	0.2	0.2	0.3	24.5
10	한국	224	548	692	0.1	0.2	0.2	26.3

주: HS Code 330499(기타 화장품 및 피부용 제품, 기초 화장품)

자료: GTA('25년 8월 13일 기준)

- 반면 '23년 대비 '24년 포르투갈의 화장품 수출액은 9,000만 달러에서 8,000만 달러로 약 10.1% 감소
- '24년 기준, 수출 상위 3개국은 스페인(1,000만 달러), 미국(800만 달러), 홍콩(600만 달러)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출액의 약 44.4%를 차지
- 한국으로의 수출은 7만 4,000만 달러로 34.9% 감소

최근 3년간 포르투갈 화장품(HS Code 330499)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2024년
-	전체	76,498	90,085	80,997	100.0	100.0	100.0	-10.1
1	스페인	16,651	17,166	13,759	21.8	19.1	17.0	-19.9
2	미국	5,226	5,992	8,277	6.8	6.7	10.2	38.1
3	홍콩	2,914	3,765	5,945	3.8	4.2	7.3	57.9
4	독일	1,354	3,398	4,700	1.8	3.8	5.8	38.3
5	앙골라	5,285	5,068	4,259	6.9	5.6	5.3	-16.0
6	사우디아라비아	3,847	5,289	3,693	5.0	5.9	4.6	-30.2
7	UAE	2,247	3,848	3,668	2.9	4.3	4.5	-4.7
8	영국	3,028	2,987	3,646	4.0	3.3	4.5	22.0
9	네덜란드	4,620	4,082	3,459	6.0	4.5	4.3	-15.3
10	폴란드	1,338	3,143	3,257	1.8	3.5	4.0	3.6
66	한국	191	114	74	0.3	0.1	0.1	-34.9

주: HS Code 330499(기타 화장품 및 피부용 제품, 기초 화장품)

자료: GTA('25년 8월 13일 기준)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소비 동향

- 포르투갈 소비자들 사이에서 노화 지연 및 자외선 노출 문제 해결을 위한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습·광채·안티에이징·여드름·브라이트닝 등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임
- 단계별 스킨케어 루틴과 특정 피부 고민을 겨냥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목적별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 맞춤형 솔루션과 데일리·나이트 루틴 확산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SNS 플랫폼 이용 확산과 인플루언서 영향력 증대로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신규 브랜드 및 제품 발굴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뷰티 제품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
- 천연·유기농·비건 성분과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지 유통 및 기업 동향

- Perfumes & Companhia, Wells, Douglas, Sephora 등 자국 및 글로벌 뷰티 유통 체인이 주요 유통 채널로 자리 잡고 있으며, 슈퍼마켓 등에서의 뷰티 제품 판매도 활성화
- '24년 기준 잡화점 매출이 유통 채널 중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포르투갈 시장에 진출해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 덴마크의 리테일 체인 Normal이 대표적임
- 뷰티 기업 중에서 로레알(L'Oréal)이 '24년 스킨케어 시장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및 대중적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신규 제품을 지속 출시 중
- 그 외에 나오스社의 NAOS·Bioderma, 바이어스도르프社의 Nivea, 유니레버社 등이 포르투갈 뷰티 시장의 대표적인 주요 브랜드이며 민감성 피부 및 맞춤형 솔루션, 친환경·비건 콘셉트 제품 출시를 확대하고 있음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뷰티 및 퍼스널케어 시장 지속적인 성장세

- 포르투갈 뷰티 및 퍼스널케어 시장은 '25년 23억 1,000만 달러에서 '26년 23억 9,000만 달러, '30년까지 26억 9,000만 달러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특히 스킨케어 시장은 '25년 6억 7,000만 달러 규모에서 '26년 6억 9,800만 달러, '30년에는 7억 9,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 예상
- 남성 소비자들도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젠더리스·유니섹스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기회요인

- K-뷰티 붐 확산세 속 진출 가능성 증대
 - K-드라마와 영화 인기 확산으로 포르투갈 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이에 따라 K-뷰티 제품과 스킨케어 방식에 대한 관심 또한 동반 증가세
 -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K-뷰티 신규 전문 매장의 개점과 기존 매장의 빠른 성장세가 이를 뒷받침
 - * 화장품(HS Code 330499) 대한 수입액 : 22만 4,000달러('22년) → 54만 8,000달러('23년) → 69만 2,000달러('24년)
 - K-뷰티의 핵심 특징인 개인 맞춤형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이 포르투갈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으며, 다양한 단계별 제품 및 솔루션 수요 확대 중
 - 소비자들의 피부 고민과 목적에 맞춘 타겟형 제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적인 맞춤형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 확대

다. K-팝 관련 소비재 산업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포르투갈 전체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26년 약 9억 9,000만 달러의 매출 달성 전망, 그 중 디지털 음악 시장은 '25년에 약 1억 1,000만 달러 규모 예상(Statista)
 - 포르투갈 내 문구류 시장은 '24년 소매 기준 약 9억 7,000만 유로, 연 3.3% 성장률로 지속적인 확대 예상
 - K-팝은 아직 틈새 시장이나, 팬덤 기반 및 10~20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확산되는 추세
 - * 최근 포르투갈에서 열린 K-팝 투어의 성공('24년 하반기 카드, 에이스, 다크비, '25년 키스오브라이프, 피원하모니 등 공연)과 '25년 9월 뮤직뱅크에 이어 수요 증가 예상
 - 콘서트·페스티벌 참여 외에도 온라인 커머스 및 현지 소매점을 통한 K-팝 관련 굿즈(앨범, 포토카드, 의류, 액세서리 등) 등 문화 소비와 연계된 시장도 성장세 전망
 - 단순 음악 소비에서 벗어나 패션, 뷰티, 문구류, 캐릭터 상품 등 문화 기반 소비재로 연결되는 양상
- 최근 수출입 동향
 - 음악앨범의 경우, '25년 5월 기준 수입 상위 3개국은 네덜란드(7,400만 달러), 스페인(4,400만 달러), 독일(1,300만 달러)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입액의 약 76.2%를 차지
 - '24년 5월 대비 '25년 5월 전체 앨범 수입액은 13.0% 감소하였지만, 한국은 5.6% 증가

최근 3년간 포르투갈 앨범(HS Code 852349)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24년/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	전체	76,700	51,060	17,196	100.0	100.0	100.0	-13.0
1	네덜란드	16,188	17,412	7,408	21.1	34.1	43.1	15.0
2	스페인	14,073	14,355	4,410	18.4	28.1	25.7	-9.4
3	독일	26,419	7,406	1,284	34.4	14.5	7.5	-56.1
4	이탈리아	5,250	3,154	789	6.9	6.2	4.6	-53.3
5	체코공화국	1,320	515	710	1.7	1.0	4.1	494.9
6	프랑스	2,079	1,460	682	2.7	2.9	4.0	82.3
7	아일랜드	1,641	1,757	467	2.1	3.4	2.7	-53.7
8	영국	1,114	1,416	420	1.5	2.8	2.4	-31.1
9	미국	672	466	151	0.9	0.9	0.9	-15.7
10	스웨덴	1,540	721	148	2.0	1.4	0.9	-57.4
14	한국	184	204	69	0.2	0.4	0.4	5.6

주: HS Code 852349(음향 또는 기타 현상 기록용 광디스크, 앨범, K-팝 음악앨범에는 포토앨범도 포함되어 있어서 동 HS Code를 주로 사용)

자료: KITA('25년 8월 29일 기준)

- 수출의 경우, '24년 5월 대비 '25년 5월 수출액은 3,400만 달러에서 2,400만 달러로 약 27.8% 감소했으며, 수출 상위 3개국은 앙골라(약 88만 달러), 영국(약 57만 달러), 미국(약 28만 달러)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출액의 약 68.9%를 차지

최근 3년간 포르투갈 앨범(HS Code 852349)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			점유율			증감률 2024년/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	전체	8,297	7,542	2,438	100.0	100.0	100.0	-27.8
1	앙골라	2,074	2,332	883	25.0	30.9	36.2	9.6
2	영국	1,444	1,503	571	17.4	19.9	23.4	-16.1
3	미국	746	666	227	9.0	8.8	9.3	-37.7
4	스페인	616	693	195	7.4	9.2	8.0	-49.9
5	네덜란드	800	476	140	9.6	6.3	5.7	-50.5
6	독일	719	326	106	8.7	4.3	4.4	-33.9
7	덴마크	524	432	71	6.3	5.7	2.9	-71.2
8	헝가리	8	20	50	0.1	0.3	2.1	621.6
9	이탈리아	103	65	45	1.2	0.9	1.9	49.3
10	그리스	201	212	41	2.4	2.8	1.7	-33.9
17	한국	0	0	4	0.0	0.0	0.3	-

주: HS Code 852349(음향 또는 기타 현상 기록용 광디스크, 앨범)

자료: KITA('25년 8월 29일 기준)

- 응원봉이 포함된 축제 용품 및 오락 용품의 경우(HS Code 950590), '24년 5월 대비 '25년 5월 전체 수입액은 420만 달러에서 450만 달러로 약 8.2% 증가
- '25년 5월 기준, 수입 상위 3개국은 스페인(180만 달러), 네덜란드(120만 달러), 중국(96만 달러)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입액의 약 86.4%를 차지
- 한국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13% 증가

최근 3년간 포르투갈 응원봉(HS Code 950590)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24년/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	전체	15,417	14,762	4,560	100.0	100.0	100.0	8.2
1	스페인	8,119	4,955	1,752	52.7	33.6	38.4	-1.6
2	네덜란드	3,270	3,643	1,223	21.2	24.7	27.0	25.7
3	중국	1,752	4,199	956	11.4	28.4	21.0	23.3
4	독일	428	543	299	2.8	3.7	6.6	180.8
5	프랑스	425	399	131	2.8	2.7	2.9	-7.7
6	폴란드	772	239	56	5.0	1.6	1.2	-63.3
7	미국	76	63	24	0.5	0.4	0.5	26.9
8	일본	17	22	21	0.1	0.2	0.5	89.4
9	영국	198	129	16	1.3	0.9	0.4	-47.2
10	이탈리아	161	320	15	1.1	2.2	0.3	-90.6
18	한국	4	6	2	0.0	0.0	0.1	13.0

주: HS Code 950590(축제·카니발 및 오락용 물품, 응원봉)

자료: KITA('25년 8월 29일 기준)

- '24년 5월 대비 '25년 5월 전체 HS Code 950590 제품 수출액은 95만 달러에서 170만 달러로 약 84.8% 크게 증가
- 수출 상위 3개국은 스페인(67만 달러), 프랑스(35만 달러), 미국(29만 달러)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74.9%를 차지

최근 3년간 포르투갈 응원봉(HS Code 950590)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			점유율			증감률 2024년/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	전체	4,497	5,013	1,748	100.0	100.0	100.0	84.8
1	스페인	456	3,143	668	10.1	62.7	38.2	177.1
2	프랑스	2,032	1,215	351	45.2	24.2	20.1	-25.8
3	미국	423	396	290	9.4	7.9	16.6	65.9
4	네덜란드	0.71	1	203	0.0	0.0	11.6	50652.5
5	독일	881	9	73	19.6	0.2	4.2	1412.9
6	폴란드	8	7	37	0.2	0.1	2.1	1194.5
7	영국	26	25	31	0.6	0.5	1.8	188.6
8	앙골라	74	61	28	1.6	1.2	1.6	222.6
9	사우디아라비아	0.66	0.92	20	0.0	0.0	1.1	10800.0
10	에스토니아	0.00	2	5	0.0	0.1	0.9	1035.5
34	한국	6	1	0.25	0.1	0.0	0.0	-

주: HS Code 950590(축제·카니발 및 오락용 물품, 응원봉)

자료: KITA('25년 8월 29일 기준)

- 포토 카드 등 사무용품(HS Code 482090)의 경우, '25년 5월 전체 수입액은 73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5.4% 증가
- '25년 5월 기준, 수입 상위 3개국은 스페인(65만 달러), 이집트(14만 달러), 독일(10만 달러)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입액의 약 73.2%를 차지
- 한국은 아직 미미한 금액이기는 하나 전년 대비 61.4% 증가

최근 3년간 포르투갈 포토카드(HS Code 482090)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24년/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	전체	2,730	2,194	1,208	100.0	100.0	100.0	65.4
1	스페인	1,567	1,359	653	57.4	62.0	54.1	36.1
2	이집트	0	114	137	0.0	5.2	11.3	-
3	독일	206	101	96	7.6	4.6	8.0	112.8
4	네덜란드	118	68	91	4.3	3.1	7.5	302.6
5	프랑스	334	223	55	12.2	10.2	4.6	-17.6
6	영국	105	46	53	3.9	2.1	4.4	113.0
7	중국	276	199	46	10.1	9.1	3.8	-11.8
8	미국	13	10	26	0.5	0.5	2.2	477.3
9	폴란드	4	7	17	0.2	0.3	1.4	350.0
10	브라질	24	17	9	0.9	0.8	0.7	-3.5
16	한국	2	2	1	0.1	0.1	0.1	61.4

주: HS Code 482090(기타 가공한 종이·판지 제품, 포토카드)

자료: KITA('25년 8월 29일 기준)

- '24년 5월 대비 '25년 5월 전체 포토 카드 수출액은 240만 달러에서 140만 달러로 약 40.1% 크게 감소
- 수출 상위 3개국은 스페인(58만 달러), 프랑스(34만 달러), 벨기에(14만 달러)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출액의 약 73.9%를 차지

최근 3년간 포르투갈 포토카드(HS Code 482090)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24년/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	전체	5,116	5,483	1,439	100.0	100.0	100.0	-40.1
1	스페인	1,320	1,854	584	25.8	33.8	40.6	-12.3
2	프랑스	728	621	337	14.2	11.3	23.4	14.1
3	벨기에	999	1,146	142	19.5	20.9	9.9	-81.9
4	네덜란드	326	367	123	6.4	6.7	8.5	-27.1
5	그리스	184	190	73	3.6	3.5	5.1	130.9
6	룩셈부르크	0.02	0.95	40	0.0	0.0	2.8	49762.5
7	몰타	151	183	32	3.0	3.3	2.3	-
8	독일	72	164	30	1.4	3.0	2.1	-49.6
9	모로코	0.51	0.63	17	0.0	0.0	1.2	-
10	앙골라	202	89	17	3.9	1.6	1.2	-44.8
	한국	0	0	0	0.0	0.0	0.0	-

주: HS Code 482090(기타 가공한 종이·판지 제품, 포토카드)

자료: KITA('25년 8월 29일 기준)

- 포르투갈의 실물 앨범 및 관련 상품 수입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K-팝 앨범, 응원봉, 포토 카드와 문구류 등 다양한 제품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대형 유통사 진입 및 전문 소매점과 온라인숍 증가세
 - Fnac, Tubitek 등 현지 대형 리테일러가 K-팝 앨범·DVD·머천다이즈 코너를 마련해 판매 중이며, 포르투 등 주요 도시에 K-팝 굿즈 오프라인 전문점이 등장
 - 또한, 온라인몰을 통해 팬덤 대상 소량 다품종 판매 또한 확대되고 있음
 - '25년 현재 포르투갈에 3개의 온오프라인 K-팝 매장 운영 중
 - * BakBak(브라가, 온라인), Inc Redible Store(포르투, 온·오프라인), Byeol Music(알마다, 온·오프라인)
- 한류 문화 이벤트 증가
 - 대사관 주최 한국 문화의 날 행사 이외에도 한국 영화제, 소규모 한류 페스티벌 등이 개최되며, 이 과정에서 문구·소비재·식품을 함께 소개하는 중

- 포르투갈 내 K-팝 제품군 확대 기대
 - 앨범, 응원봉, 포토카드는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지만, 포르투갈에서는 콘서트 상품, 팝업 상품, 콜라보 상품과 같이 보다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
 - 현지 상점들이 상품 구성을 다양화함에 따라 K-팝 문구류(바인더, 스티커, 포토카드 홀더 등)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협업 수요) 포르투갈 내 K-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국내 A사(응원봉, 앨범 등 K POP 제품)는 '23년 포르투갈 수출 시작했을 당시 전 세계 수출액이 약 1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포르투갈이 상위 10대 수출국으로 부상
 - 포토카드, 팝업 MD, 스페셜 이벤트 MD 등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독점 상품 공급 및 팬 참여형 이벤트(럭키드로우 등)를 통한 협업 가능성도 있음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포르투갈에서 K-팝 시장은 아직 규모가 작지만, 최근 수년간 팬덤 기반 확대와 더불어 점차 주류 문화로 편입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뮤직뱅크 리스본 개최('25년 9월)와 같은 대형 이벤트는 현지 소비자와 외국 팬들의 관심을 크게 끌며 시장 확대의 촉매 역할을 할 전망
 -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이벤트(팬미팅, 럭키드로우 등)가 결합된 형태의 시장 확산이 유망
- 최근 현지 K-팝 전용 매장의 증가(브라가, 포르투, 알마다 등)는 K-팝 관련 제품이 틈새 시장을 넘어 보다 안정적인 유통 구조를 확보해 나가는 신호로 해석됨
-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 유연한 MOQ(최소 주문 수량), 한정판 및 독점 상품 제안 등을 통해 현지 팬덤 기반 소매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장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포르투갈의 K-팝 관련 소비재 시장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 시 여전히 규모가 작으므로 유연한 MOQ 제시 필요



Ⅲ.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54
2. 진출전략	56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25년 5월 조기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추진 시 어려움 직면
- EU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정책 집행 및 시행령 마련에 집중
- 정책 추진 시 EU 기금 다수 활용



경제(Economic)

- 관광업 호조로 유로존 평균을 웃도는 경제 성장을 유지 전망('26년 2.1%, IMF)
- 민간 소비 성장을 둔화 우려('24년 2.0%, '25년 1.9%, 포르투갈은행)
- 인플레이션 소폭 상승('25년 2%, '26년 2.1, IMF) 및 ECB 금리 현상 유지('25년 4분기~'26년 1분기 2.0%) 전망
- 실업률 소폭 하락('25년 6.4%, '26년 6.3%, IMF) 전망



사회문화(Social)

- 초고령화 사회 기진입으로 빠른 고령화가 지속되나 노동 이민 인구 증가로 인구 균형 유지
- 타 유럽국 대비 낮은 생활비, 높은 삶의 질 유지 가능성으로 미국, 유럽 등 은퇴이민자 유입 증가
- 소비자들의 가격 경쟁력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중시 강화
-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요 도시의 심각한 주거 문제
- 대외 지향적이고 개방성이 높아 외국어에 능하고 타문화에 친화적



기술(Technological)

-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이 70% 이상으로 에너지 혁신 선도
- 민간 부문은 핀테크, 전자상거래, 디지털 전환이 발전되었지만, 전자정부 수준이 낮은 편으로 민관 디지털화 수준의 큰 격차
- R&D 투자 시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 등 EU 기금 적극 활용
- 광섬유 네트워크, 5G 기술의 전국적인 분포로 최신 통신 서비스 제공
- '테크 비자' 등 스타트업과 기술 인재를 위한 허브로 성장 중

SWOT 분석

강점(Strength)



-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
- 한국-EU FTA에 따른 무관세 이점
-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선도 기술 경쟁력 보유

약점(Weakness)



- 주재국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제품 가격
- 시장 규모 대비 바이어에게 부담스러운 최소 주문량(MOQ)
- 비EU 국가에 요구되는 복잡한 추가 인증
- 포르투갈 내 거점 마련, 물류, 적시 납기, AS 등의 대응에 취약

기회(Opportunity)



- 전자상거래 채널의 확장으로 판매 다각화
-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 유럽의 해상 관문으로서 유리한 위치
- EU 회원국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케팅 시장
-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소비 비율
- 우수한 영어 구사력
- 타 유럽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위협(Threat)



-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가격에 민감
- 복잡한 통관시스템으로 역외국 직수입 기피 및 주변국을 통한 소량 주문 선호
-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로 경쟁 심화
- 관료적인 시스템으로 절차 지연
- 화장품 시장 진입 시 EU 공통 인증 외에 현지 절차 필요
- 타 유럽국 대비 느린 한류 확산세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K-뷰티 등 소비재 시장 공략
-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 및 협력 강화
- 포르투갈의 해상 관문을 통해 유럽 전역에 유통
- 바이어 및 소비자 대상 한국산 체험 기회 제공



소비재 유통망 시장
진출 및 친환경
비즈니스 기회 포착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높은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 전자상거래, AI 기반 마케팅 전략 적극 활용
- 현지 제조 및 조립공장 운영으로 물류문제 개선



디지털 기반
진출 기회 다변화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신규 디지털 유통 채널 및 유통망 적극 진출
- 현지 전시회·컨퍼런스 참여 통한 네트워킹 강화
- 유럽 및 아프리카 시장 허브로 활용
- 전략 분야 합작투자, 기술 협력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



제조업 진출로
유럽 진출 거점 마련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현지 네트워크 형성으로 진출 리스크 최소화
- 의료, 에너지 분야 새로운 수요 발굴
- 포르투갈 필수 인증 취득에 적극 대응



EU 정책·규제 및
현지 인증 적극 대응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노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 품목에 적극 대응 • 의료 디지털화 확산에 따른 첨단장비 시장 진출 • K-뷰티 확산 속에 뷰티 의료기기 수요 확대 활용 •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수요에 대응
전력·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 태양광 등 현지 점유율 증가 에너지원 관련 기자재 시장 진출 • 전력 저장 장치 등 에너지 효율 관련 장비 시장 진출 모색 • 그린수소 생산·저장 관련 시스템, 기자재 시장 확대에 대응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 속에 직수출 확대 • 온라인 판촉·오프라인 체험을 통한 소비자 대상 제품 마케팅 확대 • 가격에 민감한 포르투갈 소비자 대상 합리적인 가격 설정 필요 • 주요 쇼핑 시즌을 겨냥한 선물세트 마케팅 전개

전략 ① (의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대응



전략 수립 배경

-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분야의 높은 수입 의존도
 - 팬데믹 이후 헬스케어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중요한 추진과제로 대두
- 한국산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선호도 증가 및 첨단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기회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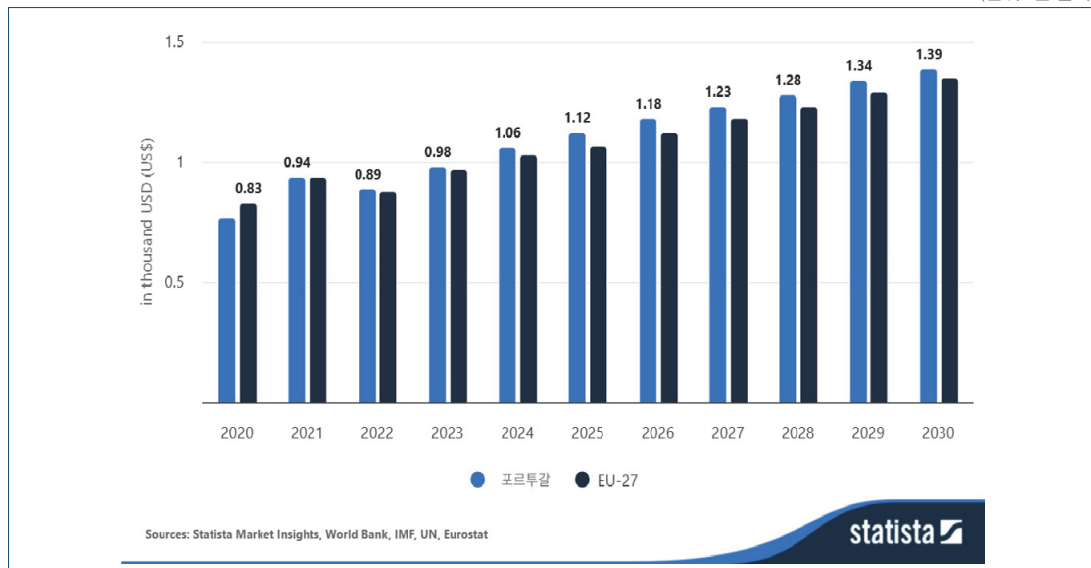
□ 현지 동향

- 포르투갈 소비자, 헬스케어 분야에서 EU 평균 대비 높은 지출
 - 고령 인구 비중 확대, 만성질환 증가, 공공의료 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민간 보험 및 사설 의료기관 이용 확대, 웰니스·예방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기인
 - 포르투갈의 가계 보건 지출은 EU 평균 이상이며, 특히 의약품·약국 지출이 EU 상위권에 속함
 - 공공의료의 긴 대기 시간으로 민간 건강보험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Eurostat, OECD Health Statistics, INE, INFARMED, WHO Portugal Health System Review)

〈포르투갈과 EU 27개국의 가계 보건 지출 비교〉

(단위: 천 달러)



자료: Statista, '25년 9월 15일 기준

- 포르투갈의 헬스케어 시장은 수입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 관련 및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세
 - 특히, 팬데믹 이후 원격진료나 의료정보시스템 같은 디지털화가 중요한 추진 과제로 대두되며 EU 기금(RRP) 활용 등을 통해 의료 기술 향상에 노력
 - * 포르투갈의 의료기술 시장 : '19년 19억 4,000만 유로(약 3조 1,000억 원)에서 '25년 25억 6,000만 유로(약 4조 2,000억 원)로 약 32% 성장, '29년까지 31억 1,000만 유로(약 5조 7,000억 원)로 '24년 대비 21.5% 성장할 것으로 예상(Statista)
- 포르투갈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국가보건서비스(NHS) 하에 운영되며, NHS 병원을 위한 구매는 보건부의 서비스 기관(SPMS)에서 입찰 공고 및 관리
 - 공개 입찰 전 경쟁 기업들 간의 사전 선택 과정이 있으며,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을 병원에서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제안을 선택
 - 공공기관과 계약 시 지급 기한이 매우 긴 편이므로 현지 달러를 통한 진출 시 이 점에 유의 필요
 - * 포르투갈 정부의 지급일은 평균 85일('24년 12월 기준)로 공공부문 거래 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 평균 지급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22년 평균 140일, '23년 평균 122일)

□ 유망 품목

- (진단기기)
 - 의료기기 수입은 '24년에 전년 대비 10.2% 증가, 내과·외과·치과·수외과용 진단기기(HS Code 9018), 정형외과 기기(HS Code 9021), 물리·화학 분석 장비(HS Code 9027)가 상위 3대 수입 품목이며, 전체 수입의 53%를 차지
 - HS Code 9018 중 의료 진단기기 및 전자 장치(HS Code 901890)가 전체 수입의 50.2%로 수요가 크며, 전기 수술 장치, 혈액투석 의료기기 및 관련 장비, 마취 기기 등이 포함
 - * HS Code 901890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4년에 전년 대비 3.6% 증가한 122만 달러 기록
 - 의료용 주사기(HS Code 901839)와 전기진단 장치(HS Code 901819)에 대한 수요도 높음

HS Code별 수입 동향

(단위: 만 달러, %)

HS Code	2023년	2024년	증감률 2023년/2024년
901839	6,800	12,720	87.0
901819	2,280	5,290	131.6

자료: 포르투갈 중앙은행(BP)

- (정형외과 기기) 인구 고령화에 따라 꾸준한 수요 증가세
 - 정형외과 기기(HS Code 9021) 중 치과 보철 및 부품(HS Code 902129)과 인공 신체 부품(HS Code 902190)에 높은 수요 존재
 -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HS Code 9021이 '24년 전년 대비 46% 증가한 530만 달러, HS Code 902129는 '24년 490만 달러로 45.5% 증가, HS Code 902190은 74.4% 증가한 43만 달러 기록
 - 고령화 인구 특성 및 재활센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출도 유리할 수 있음
 - 인구 특성에 따른 지역별 유통업체나 의료 공급업체 타겟팅 가능
- (미용 의료기기) 한국산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 증대
 - 필러, 리프팅 실, 스킨부스터, 미용 시술 장비 등 한국산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안전성·효과·가격 대비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
 - 웰빙·미용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K-뷰티 및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맞물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화되는 추세
 - 실제로 한국 제품 수입을 희망하는 현지 미용 클리닉과 의료기기 유통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 브랜드의 공식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 파트너십을 모색 중임

□ 진출전략

- 현지 민간 분야 공략을 통한 시장 진입
 - 의료기기 시장 진출 시, 공공조달에 비해 의사결정이 빠르고 구매 절차가 간소한 민간 병원, 클리닉, 헬스케어 제공업체 등이 진입 경로로 활용 가능
 - 사립병원들은 고급 진료 서비스와 최신 의료장비 도입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비 선정 시 품질과 안전성, 애프터서비스, 임상 데이터 신뢰성을 중시
 - * 포르투갈의 주요 사립병원은 Hospital da Luz(Luz Saúde 그룹), CUF Saúde(José de Mello Saúde 그룹), Lusíadas Saúde(UnitedHealth Group 계열), Trofa Saúde 등이 대표적이며, 전국 주요 도시에 병원과 클리닉을 운영
 - 한국 기업은 국제 인증자료, 임상 성능 데이터, 사용자 편의성 개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병원별로 정형외과, 재활의학, 치과, 미용·성형 등 특화 진료과가 상이하므로, 병원별 맞춤형 제안서를 통해 구체적인 제품 적용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의료진 대상 제품 데모, 워크숍, 무료 트라이얼 설치 등을 통해 현장 신뢰도를 확보하는 전략도 유효
 - 민간 병원과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현지 유통업체 및 수입상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대부분의 병원은 기존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지 유통업체와 공동 마케팅 또는 독점 유통계약 체결을 통해 초기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포르투갈 내 AS 센터 또는 지사 설립을 통해 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각 유통사의 전문 분야(영상진단기기, 치과장비, 수술기기 등)에 따라 파트너를 차별화하면 시장 침투율을 높일 수 있음
-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재활센터, 요양병원, 진단검사센터 등 헬스케어 서비스업체에서 소형·저소음·휴대성이 강화된 장비나 웨어러블 헬스 디바이스, 재활보조기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한국 기업은 고령층 친화적 디자인, 인체공학적 구조, 원격진단 연계 기능 등을 강조한 맞춤형 제품 제안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마케팅 측면에서는 포르투갈 내 주요 의료 관련 전시회 참가 및 전문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임
- 가격 경쟁이 치열한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저가 공급보다는 품질·내구성·기술혁신성·서비스 대응력을 강조하는 중고가 전략이 바람직
- 포르투갈 의료 분야의 AI 도입 확대 활용
 - AI 기술 활용의 장점(속도·품질·정밀도 향상)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포르투갈 병원과 전문 진단 센터들이 AI 솔루션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진단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노력 확대로 한국의 혁신적 AI 기술 확산 기회 존재
 - * 한국기업과의 협력 사례 : 유방암 탐지 도구를 통해 포르투갈 암협회(LPCC)와 협력, 호흡기 질환 진단용 AI 솔루션으로 폐병학센터와 협력(R사)
- EU 규제 준수와 신뢰 구축 전략
 - 포르투갈을 포함한 EU 시장에서는 CE 인증을 비롯한 규제 준수가 필수이며, 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품질 기준 충족 여부가 시장 진입의 기본 조건임
 - 또한, 사후 서비스(AS) 체계와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현지에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신뢰 확보의 핵심
 - 포르투갈 의료기관은 장비 도입 이후의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긴급 대응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유통사,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사용자 교육과 임상 지원을 함께 제공하면서 의료진의 만족도를 높이고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할 수 있음
- 미용 의료기기 시장 진출 확대 추진
 -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미용·의료 소비 성향이 유사하고 시장 연계성이 높으므로 이베리아 반도 미용 시장 동시 공략
 - 현지 클리닉 대상 제품 체험·교육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제품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인플루언서·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브랜드 신뢰도 강화가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

전략 ② (전력) 에너지 분야 진출 및 협력 강화



전략 수립 배경

- 포르투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로 '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 전력 생산의 70%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충당되었고, 태양광, 풍력 발전 프로젝트 활발
- 한국 기업은 재생에너지 통합 운영, ESS·BMS, 수소 전해조·연료전지 등 고도화 기술 경쟁력 보유

□ 현지 동향

- 포르투갈 정부와 기업들은 '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
 - '25년 1~8월 포르투갈에서 총 3만 3,109GWh의 에너지가 생산되었으며, 이 중 76.9%가 재생 에너지로 충당(REN)
 - '24년 동기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이 2.3%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여름철 악천후로 인해 풍력 및 수력 발전량이 줄어든 데 기인
 - 반면 동 기간 중 태양광 에너지 생산은 24.2% 증가했으며, 여름철 동안 포르투갈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위치 유지
 - 수소 사용 관련, 포르투갈은 '23년 기준 유럽에서 9번째로 많은 수소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음
 - * 수소 프로젝트 수 : 독일(101개), 스페인(89개), 네덜란드(69개), 영국(67개), 프랑스(54개), 노르웨이(35개), 덴마크(33개), 이탈리아(24개), 포르투갈(21개) 순(Statista)
 - * 포르투갈 에너지기업 EDP는 FLEXnCONFU 프로그램을 통해 '25년 9월 첫 수소 분자 생산 및 주입 성공
 - 포르투갈은 H2Med 그린수소 회랑과 같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향후 수소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중임
 - * H2Med 수소 인프라 프로젝트는 '30년까지 이베리아 반도에서 독일에 이르기까지 그린수소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REN을 포함한 5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천연가스망에 수소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차원의 입찰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린수소의 가스망 주입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포르투갈은 '30년까지 그린수소 생산 능력을 2.5GW에서 5.5GW로 확대하기 위해 7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또한, 도로 운송에서 그린수소 비중을 1%에서 5%로, 해상 운송에서는 3%에서 5%로, 전체 소비에서는 1.5%에서 2%로 확대할 계획

- 신재생에너지원과 수소 생산 통합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관심 크게 증가, 인프라 구축 및 생산 증대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
 - 공공 정책과 EU의 자금 지원(Horizon 2020 및 RRP 등)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민간 투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
 - 재생에너지 산업은 계속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최근 저장 기술의 통합과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프랑스 그룹 네오엔(Neoen)은 리우 마이오르와 토레 벨라 인근 2개의 태양광 발전소로 구성된 포르투갈 최대 태양광 단지를 준공했으며, '25년 상반기 말에 완전 가동에 들어감. 해당 단지는 272MWp의 설비용량 보유, 11만 가구 이상에 전력 공급 가능
- 포르투갈 정부는 '25년 7월 말, 4월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이베리아 반도 정전)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계획 발표
 - 대정전 재발 방지를 위한 31개 대책과 총 4억 유로 투자 계획
 - 전력망의 운영 및 제어 시스템 현대화 예정
 - 블랙스타트 발전소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
 - * 기존의 Tapada do Outeiro, Castelo de Bode 외에 Baixo Sabor 및 Alqueva 추가
 - 배터리 저장 용량 확대(13MW → 750MW) 대폭 확대
 - 병원·상하수도 기관 등에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백업 장비 설치 등 중요 기반 시설(병원 등) 대응력 강화
 - 프랑스 등 EU 국가와의 전력 연결망 및 국제 협력 강화 추진

□ 유망 품목

- 재생에너지 통합·운영 장비 및 솔루션(HS Code 853710 등)
 - 제어 시스템, 배전반, 모니터링 장비, 충전 컨트롤러, 제어 패널 등은 태양광·풍력 발전의 운영 및 최적화, 전력 흐름 제어, 시스템 효율 관리에 필수적
 - 특히 포르투갈은 전력 생산의 7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어, 전력망 안정화·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 풍력·수력 발전량 변동성 대응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등 저장 기술의 필요성이 빠르게 증가
 - 여기에 스마트그리드 장비 및 IoT 기반 센서, AI 효율화 솔루션이 결합하면서, 실시간 데이터 수집·원격 모니터링·지능형 제어 수요도 확대 중

□ 진출전략

- 현지 유통·조달 네트워크 활용
 - 프로젝트 개발사 및 EPC 기업을 통한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지 전문 유통업체·수입상을 통한 간접 수출 채널 확보
 - EU 규격·인증(CE, RoHS, ISO 등) 확보가 공공조달·민간 프로젝트 입찰 참여 필수 요건이므로 관련 인증 취득과 함께 현지 법규 및 에너지 효율 기준에 맞는 사양으로 제품 현지화 필요
 - 단순 장비 공급보다 AS, 모니터링 솔루션 포함 등 패키지 판매로 차별화
- 현지 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현지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 또는 지분 제휴를 통해 시장 진입 기반 확보
 - 현지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스템 통합 업체, 프로젝트 개발사, EPC 기업에 장비·솔루션을 공급하거나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장기적으로 수소 밸류체인 진출 기회 모색
 - 포르투갈 항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그린수소 생산·저장·수출 프로젝트에 참여, 한국 기업의 전해조, 저장, 연료전지 기술 제공 기회 모색
 - 포르투갈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한 통합형 솔루션 제공으로 현지·EU 정부 및 투자자에게 차별화된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전략 ③

(소비재) 뷰티 산업을 중심으로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전략 수립 배경

- 한류 확산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로 K-뷰티,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에 대한 수요 확대
 - 포르투갈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나, 새로운 문화 및 제품 수용도가 높음
- K-뷰티 기술력, K-푸드 다양성,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브랜드 경쟁력을 통한 차별화 가능

□ 현지 동향

- 한국 문화 트렌드의 확산과 함께 K-뷰티 스킨케어 방식 및 제품이 포르투갈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함
 - 현지 소비자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며, 특히 화장품, 가전 제품 같은 소비재 분야에서 두드러짐
 - 현지 K-뷰티 전문 매장 수 증가, 소비자층의 다변화, 지속가능성 및 맞춤형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 확산 등은 우리 기업에 유리한 진입 환경을 제공
- 식품의 경우, 관광 붐과 이민자 유입 증가로 인해 레스토랑과 슈퍼마켓에서 다양한 세계 음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 한류의 영향과 맞물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지 언론과 SNS에서도 한식에 대한 소개가 활발해지는 추세
 - 포르투갈 소비자들은 EU 27개국 대비 식품·외식에 지출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임

□ 유망 품목

-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진출 확대
 - 수입업체들이 스페인 등 주변국을 통해서 소량 다품종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에서의 직수입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세
 -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이커머스 확대로 온라인 유통망 회사를 통한 진출과 마케팅 적극 활용 필요
 - 천연 성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반영한 제품 공급과 라벨링 강조도 소비자 유인에 도움
 - 포르투갈은 인종 다양성이 큰 편이므로 소비자들의 피부와 모발 타입,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 예를 들어, 포르투갈 사람들은 태닝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 미백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음
 - 포르투갈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므로 가격 경쟁력 및 품질 차별성 필요

- (식품) 한식은 아직은 틈새 시장이나, 포르투갈 소비자들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 개방적인 편, 한국 음식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유기농 건강식품 및 친환경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제품이 진출에 유리
 - 한식 레스토랑·아시아 슈퍼마켓 확산과 더불어, 현지 유통망(대형 마트·온라인몰) 진입 기회 확대
- (문구류 및 팬시제품) K-팝 관련 제품 및 문구류, 라이프스타일 굿즈는 10~20대 소비자 타깃 유망한 틈새 시장으로 평가
 - 콘텐츠 기반 차별화·중저가 전략·현지 유통 파트너십을 통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시장 규모의 한계와 모조품 리스크 고려 필요

□ 진출전략

- 현지 전문 수입업체를 통한 대형 유통체인 입점 공략
 - K-푸드의 경우, 초기에 아시아 전문 유통업체나 현지 중소 수입상을 통해 마트·드럭스토어에 공급 하면서 점차 대형 체인에 진입 확대
 - 뷰티 제품의 경우 대형 슈퍼마켓이나 일반 뷰티 리테일보다 전문 K-뷰티 매장을 타깃으로 시장 공략
- 온라인·SNS 연계 수출 마케팅 강화
 -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지 인플루언서를 통한 제품 홍보 및 공동 캠페인 추진을 통한 온라인 소비 확대를 활용해 초기 수출 확대
 - 연말 선물용 세트상품·기획 패키지형 등 포르투갈 유통업체들이 선호하는 선물세트·박스형 상품을 수출 단계에서 기획, 현지 판촉 행사에 적합한 형태로 공급하는 방법을 추천
 - 한국 기업은 브랜드·마케팅·패키징을 현지 소비자 친화적으로 준비하고, 현지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판촉 이벤트·프로모션을 추진하는 방식이 효과적
- 현지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대의 제품군 중심 수출 확대
 - 포르투갈은 평균 임금 수준이 낮아 고가 제품보다 가성비·실용성·디자인이 조화된 중저가 제품의 수요가 높음
 -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K-뷰티 및 K-라이프스타일 제품의 진출 가능성 모색 필요
- EU 및 포르투갈 인증 준수 필요
 - 포르투갈은 수입 규제가 엄격한 편이므로, 화장품의 경우 CPNP 등록 등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시장 진출 기반 확립을 위한 필수 조건임
 - 화장품의 경우, EU의 화장품 등록 포털(CPNP) 등록 외에 포르투갈 INFARMED에 등록 필수

* INFARMED 홈페이지 : <https://www.infarmed.pt/web/infarmed/importacao>

- 식품의 경우 포르투갈 농업·어업 관리국(DRAP)을 통해 식품 수입 규정 확인 및 준수 필요
 - * 필수서류에 제품 성분 상세 설명서, 제품 또는 라벨 사진, 우유 단백질·우유 지방, 당·전분의 비율을 명시한 공급업체의 성명서(해당하지 않을 경우 0%로 표시), 상업 송장, 포장 목록, 각 품목의 HS Code,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이 포함될 수 있음
 - * DRAP 홈페이지 : <https://www.drapc.gov.pt/servicos/fitossanidade/import-export.php>
- 전자제품, 가전제품, 장난감 등은 CE 마크를 통해 EU 규정 준수



의료용 전자 진단 기기

- 선정사유**
- 만성질환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병원 및 클리닉에서 수요 증가세
- 경쟁동향**
- '24년에 한국산 수입은 크게 증가(131.6%)(GTA)
 - 주요 공급국(HS Code 901819) : 네덜란드(54.7%), 스페인(21.2%), 독일(11.5%)(GTA)
- 진출방안**
- 주요 병원, 클리닉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의료기기 전문 벤더 대상 홍보 강화
 - 맞춤형 디자인 또는 솔루션 제공으로 차별화
 - EU CE 마크 취득 및 현지 규정 준수 필요

정형외과 및 골절 치료용 제품

- 선정사유**
- 고령화와 외상성 골절 증가에 따른 시장 성장세
- 경쟁동향**
- 정형외과용 기기(HS Code 9021)의 '24년 수입은 15.7% 증가했으며, 한국산 수입도 46.1% 증가
 - 주요 수입국 : 스페인(37.6%), 네덜란드(25.5%), 벨기에(9.3%)이며, 한국은 10위(1.1%) 기록(GTA)
- 진출방안**
- 고령 인구, 재활센터 대상으로 맞춤형 제공
 - 실시간 시연 및 테스트 제공을 통해 제품 품질과 성능을 직접 경험할 기회 확대
 - EU CE 마크 취득 및 현지 규정 준수 필요

K-팝 앨범과 굿즈

- 선정사유**
- K-팝의 글로벌 인기 확산과 함께 포르투갈 내 팬덤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앨범과 MD에 대한 수요 증가
 - 현지 팬들은 단순 앨범 소비를 넘어, POB(예약 판매 특전) 부가 구성품이 포함된 앨범과 한정판 MD를 선호하여 구매 수요가 꾸준히 유지됨
- 경쟁동향**
- 포르투갈 내 앨범 수입은 규모가 크지 않으나, 최근 한국산 앨범 수입이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 앨범(HS Code 852349) 주요 수입국 : 네덜란드(약 700만 4,000달러), 스페인(약 400만 4,000달러), 독일(약 100만 3,000달러)(KITA)
- 진출방안**
- 소량 구매 바이어를 대상으로 유연한 MOQ와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를 통해 시장 진입장벽 완화
 - 차별화된 콜라보 MD, 팝업 MD, 콘서트 MD 공급 가능성이 주요 진입 이점으로 작용

식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화 확산과 함께 한국 라면 및 식품에 대한 관심 확대 • 포르투갈 면류 시장은 '24년 소매 판매액 1,900만 유로(약 310억 원)를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면(HS Code 190230) 주요 수입국 : 스페인(44.3%), 헝가리(8%), 싱가포르(7.7%)로 인근 유럽 및 아시아 국가 중심 • 바이어들은 주변국을 통한 소량 수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대규모 진출 확대에는 제약 요소로 작용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푸드 시음행사, 라이브 이벤트 등 소비자 체험형 프로모션 강화 필요 • 한국 식품 전문 마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 소량·유연한 MOQ 조건 제시 • 슈퍼마켓 진출 시 단일 제품보다 다양한 SKU를 함께 제안하는 것이 바이어 협상 및 진출에 유리 |

화장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뷰티의 인지도 확산 속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이어들의 직수입에 대한 관심 증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들의 스페인 등 주변국을 통한 소량 수입 선호가 높아 진출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메이크업·스킨케어(HS Code 330499) 주요 수입국 : 스페인(57.73%), 프랑스(19.32%), 독일(6.08%)(GTA)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뷰티에 소비자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체험 행사 확대 • 유럽 인증(CPNP) 보유 필수 및 INFARMED 등록 필요 • 소량 구매 바이어를 대상으로 유연한 MOQ와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를 통해 시장 진입장벽 완화 |



프랜차이즈(식음료)

- 선정사유**
- 외식 문화 발달 및 새로운 맛을 시도하는 청년세대 증가
 -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리스본, 포르투 등 주요 도시는 이미 전 세계 식문화 각축장
- 경쟁동향**
- 오랜 역사의 맛집을 선호하나, 대중 식당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선호
 - 경쟁이 치열한 식사류보다는 디저트류 프랜차이즈가 유망
 - 글로벌 브랜드 동향 : 버거킹, 맥도널드, 피자헛, 스타벅스 등 진출
 - 로컬 브랜드 동향 : Delta Cafe(커피), Jeronymo(커피), Padaria Portuguesa(빵), Padaria do Bairro(빵), Pão da Vila(빵), Gleba(빵), Vitaminas(건강식), Go Natural(건강식), Celeiro(건강 제품) 등 유명
- 진출방안**
- 직영점보다는, 자체 영업망과 노하우 갖춘 현지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협업

관광

- 선정사유**
- 쾌적한 날씨, 저렴한 물가, 독특한 풍광, 직항 취항 등으로 한국발 관광객 방문 수요도 나날이 증가 추세
- 경쟁동향**
- 리스본·포르투 등 주요 도시 숙박시설 부족 심화
 - 주택 부족 심화로 '23년 10월부터 리스본과 알가르브 같은 주요 도시에서 단기 숙박 신규 등록 불허
 - 2위 관광대국 스페인과 인접, 관광 수요 분산
 - 한국발 관광객 대부분 스페인 연계 상품으로 유입
- 진출방안**
- 스페인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또는 와이너리투어, 서핑투어 등 틈새 수요 노린 상품 개발
 - 테마관광 연계 리조트업 등 숙박시설 투자 등

의료기술(MedTech) 소프트웨어

- 선정사유** • 환자 치료 성과 개선, 의료 과정 간소화, 원격의료 지원을 위한 고급 의료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
- 경쟁동향** •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반 진단 도구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SWORD Health, Glooma, MyCareforce와 같은 포르투갈 MedTech 기업들이 활동 중
- 진출방안** • 기존 활동 업체들과 전략적인 제휴 추진
• 기존 의료 인프라 및 플랫폼과 원활하게 통합되고 직관적이며 접근성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제공 필요
•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관련 기술 협력
• 효과적인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유지보수 및 고객 서비스를 현지어인 포르투갈어와 영어로 제공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포르투갈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 사업명	일시/장소
소비재	화장품전시회(Expocosmetica) 연계 전시상담회	4월/포르투갈
	리스본 K-컬처 마켓	5월/리스본
	한국의 날 연계 K-Trends 쇼케이스	6월/리스본
건설	건설박람회(Tectonica) 연계 융복합사업	4월/리스본

첨부 4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	비고
포르투갈 대통령 선거	1월	
전국 지방선거	10월 12일	
카스카이스, 2026년 유럽 민주주의 수도로 선정	연중	연중 행사 개최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	비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1월	

유망 전시회 캘린더

전시회명	일시(잠정)	장소
포르투갈 리스본 식품 전시회(Lisbon Food Affair)	2월 9~11일	식품 전시회
포르투갈 리스본 관광 전시회(Better Tourism)	2월 25일~3월 1일	관광 전시회
포르투갈 포르투 화장품 전시회(Expocosmética)	4월 11~13일	뷰티제품 전시회
포르투갈 리스본 포장·물류 산업 전시회(EMPACK)	4월 22~ 23일	포장기술 및 물류 운송 전시회
포르투갈 리스본 건축·건설 산업 전시회(Tektónica)	4월 23~ 25일	국제 건설 전시회
포르투갈 리스본 스마트 시티 서밋(Smart Cities Summit)	5월 12~14일	도시 및 지역 시스템 전시회
포르투갈 포르투 자동차 전시회(Expomecânica)	5월 29~31일	자동차산업 전시회
포르투갈 포르투 건축·인테리어 전시회(Concreta)	11월 18~21일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전시회
포르투갈 리스본 치과 장비·재료 전시회(Expodentária)	11월	치과 기자재 전시회
포르투갈 리스본 웹 서밋(Web Summit)	11월	스타트업 전시 컨퍼런스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윤희	관장	리스본무역관	351 215 951 700	marisol@kotra.or.kr

2026 포르투갈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04-1 (95320)